

KREI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시사점

조승연



KREI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시사점

조승연



연구 담당

조승연 | 부연구위원 | 제1~4장 집필

토의용논문 W50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시사점

등 록 | 제6-0007호(1979. 5. 25.)

발 행 | 2020. 6.

발 행 인 | 김홍상

발 행 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우) 58321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601

대표전화 1833-5500

인 쇄 처 | 세일포커스(주)

I S B N | 979-11-6149-390-9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증가하였고, 특히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원활한 한국 사회적응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도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비해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와 결정요인은 사뭇 다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아직까지는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 및 통계자료 검토, 면접조사,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형성요인을 가정 및 학교 구성원과의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파악하였고,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 수혜를 중심으로 사회적응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어머니의 한국어 구사 능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비해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지원정책 수혜 확률은 낮게 나타났지만, 지원정책 수혜가 사회적응도 제고에 미치는 정책효과는 오히려 더 크게 나타났다.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제고를 목적으로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 및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체계화 및 확충, 지원정책 전달체계의 개선 등 기초적 정책개선 방안과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확한 사회적응 실태 파악을 위한 대표본 통계자료의 생산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2. 선행연구 검토	6
3. 연구의 범위와 내용	12
4. 연구방법	13

제2장 다문화가정 청소년 및 관련 지원정책 현황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현황	17
2. 다문화가정 청소년 관련 지원정책의 현황	21

제3장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결정 요인 분석

1. 개요	29
2. 면접조사	30
3. 계량분석	38
4. 소결	57

제4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및 결론	61
------------------	----

부록

지방자치단체 및 추진주체별 주요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내용 및 예산, 2019~2020년	65
--	----

참고문헌	75
------------	----

제1장

〈표 1-1〉 연도별 체류 외국인 비율, 2014~2019년	3
〈표 1-2〉 지역규모에 따른 초·중·고교 다문화가정 학생 수와 비율, 2019년 ...	5

제2장

〈표 2-1〉 연도, 학교급, 가정 유형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와 비율	18
〈표 2-2〉 지역규모와 학교급에 따른 다문화가정 학생 수와 비율, 2019년 ...	18
〈표 2-3〉 연도 및 부모 출신국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및 비율	19
〈표 2-4〉 지역 및 부모 출신국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및 비율, 2019년	20
〈표 2-5〉 중앙정부 부처별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 예산 및 사업 수, 2018~2019년 ...	21
〈표 2-6〉 중앙정부 부처별 다문화가정 청소년 관련 지원정책 주요 사업내용, 2019년 ...	22
〈표 2-7〉 지방자치단체별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 예산 및 사업 수, 2018~2019년 ...	22
〈표 2-8〉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내용 및 예산, 2019~2020년 ...	23

제3장

〈표 3-1〉 면접조사체계	30
〈표 3-2〉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사회적응 관련 설문항목	40
〈표 3-3〉 변수설명 및 설정 방법	42
〈표 3-4〉 5가지의 코플러(copula)결합분포함수	48
〈표 3-5〉 요약통계량	50
〈표 3-6〉 회귀분석 결과(모형 1)	52
〈표 3-7〉 회귀전환모형(switching regression)추정 결과(모형 2)	55
〈표 3-8〉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 수혜가 사회적응도에 미치는 효과 ...	56

그림 차례

제1장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14
-----------------------	----

제3장

〈그림 3-1〉 사회적응도 지수에 대한 커널밀도추정	41
------------------------------------	----

제1장

서론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최근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국제결혼의 증가로 인해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다문화가족) 또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자주 볼 수 있게 되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다문화사회화가 화두가 되고 있다. 다문화사회는 한 국가 또는 사회 내에서 서로 다른 인종·문화를 지닌 사람들이 함께 사는 사회를 의미하며, 전체 인구 중 외국인 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 다문화사회로 분류된다(조석주·박지영 2012). 2019년을 기준으로 체류 외국인 비율이 4.9%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표 1-1〉, 이제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1-1 연도별 체류 외국인 비율, 2014~2019년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전체 인구수(명)	51,327,916	51,529,338	51,696,216	51,778,544	51,826,059	51,849,961
체류외국인 수(명)	1,797,618	1,899,519	2,049,441	2,180,498	2,367,607	2,524,656
체류 외국인 비율(%)	3.5	3.7	4.0	4.2	4.6	4.9

주: 연도별 12월의 인구를 집계한 것임.

자료: 법무부(2020). 『출입국통계』.

다문화가정¹⁾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과 국적법에 따라 인지 또는 귀화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여기서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²⁾”을 뜻한다(「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

「청소년 기본법」 제3조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이라 정의하는데, 타 법률에서 청소년을 다르게 정의할 경우 해당 법률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청소년 보호법」 제2조는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의한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경우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다문화가정의 자녀” 또는 “만 19세 미만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가족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성장잠재력 저하를 완화할 동인(動因)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성장 과정 중 문화적 충돌의 경험에 따른 혼란과 갈등(이종우 2011), 한국어 능력 부족으로 인한 부모와의 소통 문제와 소외(김혜련 2013), 주관적 차별인식(한상철 2012), 이중문화적응 스트레스(은선경 2010) 등 일반 청소년에 비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으며, 때로는 주변화되거나(정호용 2017; 이소연 2018) 학업중단 및 결손 등 성장 과정 중 혼란을 겪을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다양한 성장 및 적응 과제를 부담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적응력을 필요로 하므로(박병금 2020), 이들의 사회적응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필요하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에 따르면 “가족”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 단위이며, “가정”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 부양·양육·보호·교육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의미한다. 이 연구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학교 및 가정 생활을 중심으로 파악하므로, “가족”보다는 “가정”이 적합하며,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으로 용어를 통일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관련해서 특히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주목해야 한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도시보다 농촌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율이 높는데, 2019년을 기준으로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전체 학생 수 대비 다문화 초·중·고등학생의 비율이 증가한다(표 1-2). 또한, 농촌 다문화가정은 도시 다문화가정에 비해 인구·사회학적 구성에 차이가 있다. 도시 다문화가정에 비해 농촌 다문화가정은 국내 거주기간이 짧거나, 부부간 연령차가 크거나, 저소득층의 구성비율이 높거나,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여성 결혼이민자·귀화자의 비율이 높다(김이선 외 2018). 농촌 다문화가정의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인구구성상의 특징에 따라 다문화가정 구성원, 특히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 적응 실태는 도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비해 다를 수 있고, 사회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도 도시와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 간 서로 상이할 것이라 짐작해 볼 수 있다.

표 1-2 지역규모에 따른 초·중·고교 다문화가정 학생 수와 비율, 2019년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전국	103,881	3.8	21,693	1.7	11,234	0.8	136,808	2.5
대도시	32,684	3.1	7,028	1.4	3,468	0.6	43,180	2.0
중소도시	37,239	3.1	7,669	1.3	4,300	0.7	49,208	2.1
읍면지역	31,856	6.9	6,569	3.3	3,297	1.6	41,722	4.8
도서지역	2,102	11.0	427	5.2	169	2.1	2,698	7.7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9).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저자 재구성.

농촌 혹은 농어촌 다문화가정의 사회 적응 실태를 다룬 선행연구는 농촌 다문화가정의 구성원인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측면 등에서의 사회 적응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지만(김이선 외 2018; 박대식·마상진·권인혜 2011), 이들의 자녀인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 적응 실태를 다룬 연구는 이제까지 거의 없었다.

현재 여성가족부, 법무부, 교육부 등을 중심으로 시도교육청과 지자체, 지자체 내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다양한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

이 시행되고 있다. 방과 후 수업료 지원, 급식비 보조, 문화체험 활동 지원과 같은 프로그램이 이에 해당하는데,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0조, 「교육기본법」 제4조 등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 향상, 학교생활 및 사회·문화 적응을 통해 이들의 원활한 한국 사회 동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선행연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 지원 정책의 수혜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문화적 적응과 관련이 있는 국가정책 체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였지만(정호용 2017),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책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그간의 선행연구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와 결정요인을 다문화가정 및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요인과 지원정책 수혜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수준 제고를 위한 기초적 정책방안 제시와 후속 연구 과제를 제안하는 것이다.

2. 선행연구 검토

2.1. 사회적응의 개념 및 유형화에 관한 연구

일반적으로 사회적응은 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 내에서 사회가 기대하는 행동 양식과 규범, 문화, 가치 등을 학습해 가는 과정을 말하는데,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은 사회적응(social adaptation)을 “개인이 사회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또는 그렇게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사회적응의 개념은 서로 다르다. Roy&Andrews(1991)는 사회적응을 “개인이 사회적인 존재로서 환경에 적절하게 반응하며 성장하는

과정”이라 보았으며, Crick&Dodge(1994)는 “개인이 사회활동 및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김수연(2010)은 사회적응이 “한 사회의 문화, 가치, 역할 등에 대한 학습 과정”이라고 보았다. 윤인진(2000)은 사회적응을 “개인의 내적·심리적 욕구와 외적·사회적 환경과의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 일상생활에서 좌절감이나 불안감 없이 만족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즉, 이들이 개념화한 사회적응은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는 수동적 과정인 반면, Lazarus(1976)는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며 욕구충족을 위해 능동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쌍방향적, 능동적 과정”이라고 보았으며, 유사한 견지에서 이현주 외(2004)는 사회적응을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자신뿐만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키는 과정”이라 주장하였다. 이상로(1979)는 사회적응을 “개인이 환경에 적응하고 환경을 통제하여 조화를 이루는 과정 또는 개인과 환경 간 균형있고 조화로운 관계를 이루어나가는 행동과정”이라고 보았다.

이민자의 사회적응은 일반인의 사회적응에 비해 복합적일 수 있는데, 그들이 속한 사회와 가정 내에서의 행동 양식, 규범, 문화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서광석(2010)은 결혼이민자의 이상적인 사회적응은 “새로운 환경에 충분히 적응하며 주류사회와 당사자들 간의 이해와 소통을 통하여 이민자로서 삶의 만족감을 느끼며 살 때”라고 보고 있다. Ward&Bochner&Furnham(2001)은 이민자의 사회적응을 “한 개인이 새로운 사회시스템에 정상적으로 안착하고 사회시스템 내에서 기능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Berry&Kostovcik(1990)은 이민자의 사회적응을 “한 개인이 자신의 고유문화를 유지함과 동시에,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화에 동화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선행연구에서 사회적응 수준을 측정하거나 정량화한 지표도 연구자들 간 서로 다르다. 오경자 외(2001)는 11~18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사회능력 척도와 문제행동 증후군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 청소년 자기행동평가 척도를 개발하여 청소년의 사회적응 수준을 계량화하였다. 노충래·홍진주(2006)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수준을 문제행동 증후군 척도를 이용하여 표준화하였다. 정호용

(2017)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다문화가족패널조사에 포함된 5개의 국가정체성 관련 설문을 이용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도를 대리(代理)측정하였고, 이소연(2018)은 같은 자료의 10개의 설문 문항을 이용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를 사회적응도와 관련이 큰 변수로 가정하였다. 박대식·마상진·권인혜(2011)는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를 경제적, 문화적, 심리적 적응으로 구분하고, 경제적 적응은 경제 만족도, 문화적 적응은 문화적응 스트레스, 심리적 적응은 심리적 안정과 자아존중감에 대한 설문을 이용하여 사회적응도를 측정하였다. 김미숙·김유경·김안나·김효진·성수미(2011)는 다문화가정 아동 및 청소년의 사회적응도를 사회심리 적응, 가족생활 적응, 학교생활 적응, 문화 적응에 대한 설문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응에 대한 개념과 유형화뿐만 아니라 사회적응 측정지표에 대한 연구자들 간 통설 혹은 다수설을 찾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회 구성원과 적절하고 원만한 관계를 맺으며 생활하지만, 우리는 사회적응도가 낮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그들이 속한 사회 구성원과 관계 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를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응을 개인이 속한 사회의 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며,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역시 이들이 직면하는 사회, 곧 학교와 가정 구성원과의 관계 형성을 중심으로 연구한다.

2.2. 농촌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 및 통합 관련 연구

박대식·최경은(2008)은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400가구에 대한 면접설문조사와 20가구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하여 농촌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농촌 다문화가정의 절반 이상이 연가소득 2,000만 원 미만이었으며, 농업참여 다문화가정은 영농기반이 취약하였고,

결혼이민자들은 사회단체 및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참여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식·마상진·권인혜(2011)는 문헌조사와 34개 도·농 복합시와 군의 읍·면 지역 거주 다문화가정 400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등을 이용하여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를 여성결혼이민자뿐만 아니라 한국인 남편, 시부모 등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심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 및 친척의 지지, 가구소득, 여성결혼이민자 남편의 문화적응 노력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성결혼이민자의 거주지역, 출신국, 가구소득은 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적응 노력, 친구와 이웃의 지지는 자아존중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이선 외(2018)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2015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의 원자료와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및 혼인·이혼통계 자료를 재분석하고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를 심층면접하여 농촌 다문화가정의 사회통합실태를 분석하였다. 농촌 여성결혼이민자는 도시 여성결혼이민자에 비해 한국어 능력이 부족하고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인과의 사회적 관계망도 비교적 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편의 연령이 부인보다 높을수록 농촌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적응도가 낮을 가능성이 크며, 농업종사 다문화가정은 비농업 종사 다문화가정보다 경제적 및 자녀교육의 문제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 다문화가정에 비해 농촌 다문화가정은 자녀교육 및 학습지원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지원정책 관련 연구

박순희·조원탁·이주희(2008)는 자아정체감, 의사소통능력, 이중문화의 이해와 수용을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적응 중심요소라 전제하였고 광주·전남 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가정 자녀 어머니의 출신국은 자녀의 의사소통능력에, 다문화가정의 소득 수준은 이중문화 수용 및 이해에, 다문화가정 부모의 교육 수준은 자녀의 국가정체성과 의사소통능력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사회적응과 학업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경(2013)은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013년 자료를 이용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건강, 거주지역, 한국어 수준, 성적,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외국인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 가구소득 등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이 학교생활 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가정 학생 전담교사 배치와 같은 지원정책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력을 향상시키는 효과는 없었다.

엄명용(2013)은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청소년 10명, 여성결혼이민자 5명, 여성결혼이민자의 남편 1명, 대안학교 교사 1명을 심층면접하여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질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청소년의 사회적응 수준은 일반 청소년과 크게 다르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사회적응 수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중도입국 청소년에게 부모의 이혼과 부족한 사회적 지지는 이들의 사회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으며, 아버지의 정서적 지지가 이들의 사회적응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하성·우룡(2007)은 초·중·고등학생 다문화가정 청소년 120명을 설문조사하고 이들의 사회적응을 가정생활, 학교생활, 지역사회생활, 문화여가생활을 중심으로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주관적 사회적응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며, 외모 불만, 불공평한 대우나 차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어 수준이 학교생활 만족도에 유의미한 관계를 보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국가정체

성이 높은 수준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이민을 원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정호용(2017)은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011~2015년 자료를 이용하고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 수혜에 따른 내생성을 통제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 수혜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국가정체성을 함양하는 인과적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였다.

오경화(2011)는 서울과 경기도 수도권 소재 중·고등학교 다문화가정 학생 120명을 설문조사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적, 문화적 특성이 한국문화 수용성과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자아의식이 높고 타 문화에 개방적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한국문화 수용능력이 높았으며 대인관계도도 높았다. 자아의식이 높거나 한국 학생과 사회적 교류가 빈번한 다문화가정 학생은 한국 학생들과의 공동작업 능력도 높게 나타났다.

김기영·고은선(2018)은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012~2015년을 이용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의 참여요인과 선호정책을 분석하였다. 초등학교 5학년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문화체험 활동’ 지원을 받은 비율이 가장 컸고,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가정 학생은 ‘방과 후 수업료 지원’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놀이공원 방문’을 최우선 희망 지원정책으로 선택하였으나, 이들이 중학교 2학년에 이르면 ‘학원비 지원’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다문화가정 자녀임을 드러나게 하는 ‘공개지원’을 ‘비공개지원’보다 더 선호한다는 것인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공개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 연구의 차별성과 의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관련된 다수의 선행연구들은 대부분 일반 다

문화가정 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고, 농촌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가족 구성원 중 하나인 여성결혼이민자를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대한 연구는 이제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며, 특히 이들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다각도로 분석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

이 연구는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가정 및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판단 및 계량화하고,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다문화가정 및 청소년의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지원정책 수혜를 내생적이라 전제하고 지원정책 수혜가 사회적응도에 미치는 정책 효과를 추정한 후, 이를 도시와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 간 비교한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의 차별성과 의의가 있다.

3. 연구의 범위와 내용

3.1. 연구의 범위 및 대상

행정구역상의 읍·면 지역은 농촌과 어촌을 포괄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농촌과 어촌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논의의 편의상 농촌이라고 상정하였다. 법령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19세 미만의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중도입국 청소년, 외국인 자녀, 탈북자 자녀를 포함한다.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유효 표본으로 조사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데이터를 주요 2차 자료로 이용하였다. 따라서, 주요 연구대상을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국제결혼가정의 자녀로 한정하였다.

3.2. 연구의 내용

이 연구의 내용을 크게 4개의 장(章)으로 구성하였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을 서술하고, 사회적응 관련 이론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검토하며 연구의 범위, 대상, 내용, 연구방법을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국내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현재 시행 중인 주요 다문화가정 청소년 관련 지원정책의 현황을 파악하였다. 제3장에서는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형성 및 결정 요인을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배경과 지원정책 수혜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끝으로, 제4장에서는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도 제고를 위한 기초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후속연구를 제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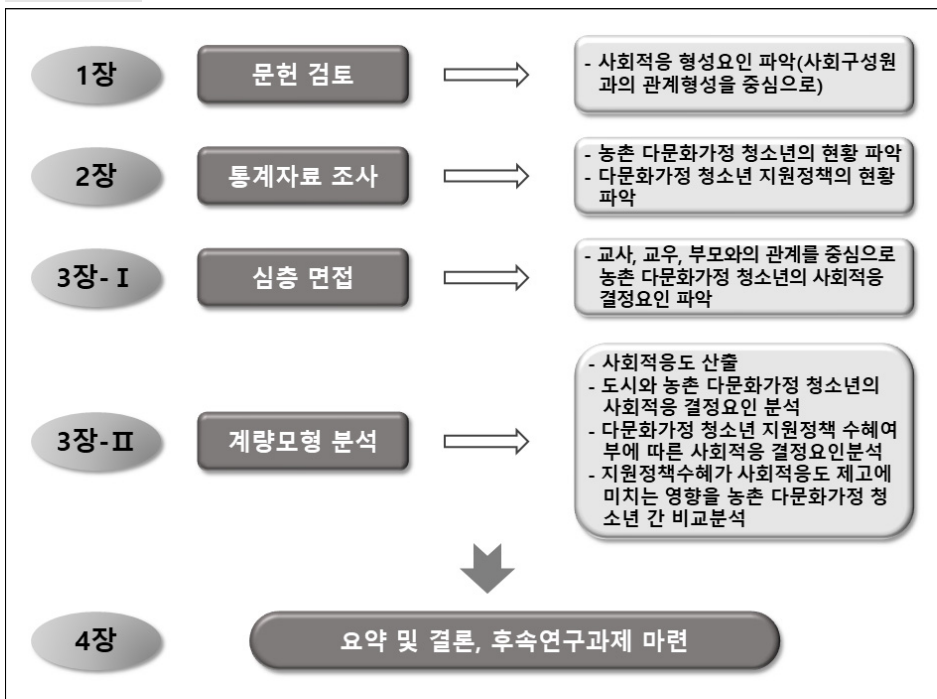
4. 연구방법

이 연구에서는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형성 및 결정 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수행 기간은 2020년 1월 15일부터 2020년 6월 14일까지 5개월이었으며, 먼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개념화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형성하는 요인을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농촌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교육·지도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 관련 전문가 대상 심층면접을 통해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형성요인을 사회구성원과의 상호작용이란 관점에서 부모, 교우, 교사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구체화하였고, 이러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을 중심으로 질적 분석하였다.

그리고,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다문화청소년패널데이터 2012~2016년을 이용하여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계량모형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선행연구와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농촌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부모, 교우, 교사와의 관계 형성과 관련된 설문을 토대로 사회적응도 지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단순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해당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사회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농촌과 도시 다문화가정 청소년 표본을 구성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회귀전환모형 (switching regression)을 이용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 참여 여부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결정요인을 분석하였고, 도시와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 간 지원정책 참여가 사회적응도 제고에 미치는 정책효과(program effects)를 추정한 후 상호 비교하였다. 연구추진체계는 아래와 같다<그림 1-1>.

그림 1-1 연구추진체계



자료: 저자 작성.

제2장

다문화가정 청소년 및 관련 지원정책 현황



2

다문화가정 청소년 및 관련 지원정책 현황

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현황

최근 국제결혼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수가 급증하였다. 연도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초·중·고등학교 및 각종학교 포함)와 전체 학생 대비 구성비율은 2015년 82,536명(1.4%), 2016년 99,186명(1.7%), 2017년 109,387명(1.9%), 2018년 122,212명(2.2%), 2019년 137,225명(2.5%)으로 매년 증가해 왔다<표 2-1>.

다문화가정 학생의 연도별 증가폭은 학교급에 따라 다르다.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수의 연도별 증가폭이 다문화가정 중학생 수의 연도별 증가폭보다 크며, 다문화가정 중학생 수의 연도별 증가폭이 다문화가정 고등학생 수의 연도별 증가폭을 상회한다. 또한, 부모 모두 외국인인 다문화가정 학생보다 국제결혼가정을 배경으로 하는 다문화가정의 학생의 수가 모든 연도에서 월등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표 2-1 연도, 학교급, 가정 유형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와 비율

단위: 명, %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전체	초등학교	60,162	2.2	73,972	2.8	82,733	3.1	93,027	3.4	103,881	3.8
	중학교	13,827	0.9	15,080	1.0	15,945	1.2	18,068	1.4	21,693	1.7
	고등학교	8,146	0.5	9,816	0.6	10,334	0.6	10,688	0.7	11,234	0.8
	각종학교	401	4.7	318	3.9	375	4.8	429	5.0	417	4.7
	계	82,536	1.4	99,186	1.7	109,387	1.9	122,212	2.2	137,225	2.5
국제 결혼 가정	초등학교	54,156	2.0	64,547	2.4	73,453	2.7	81,204	3.0	88,750	3.2
	중학교	12,443	0.8	13,099	0.9	13,987	1.0	15,506	1.2	18,022	1.4
	고등학교	7,411	0.4	8,664	0.5	9,398	0.6	9,546	0.6	9,684	0.7
	각종학교	350	4.1	242	3.0	268	3.4	327	3.8	310	3.5
	계	74,360	1.2	86,552	1.5	97,106	1.7	106,583	1.9	116,766	2.1
외국인 가정	초등학교	6,006	0.2	9,425	0.4	9,280	0.3	11,823	0.4	15,131	0.6
	중학교	1,384	0.1	1,981	0.1	1,958	0.1	2,562	0.2	3,671	0.3
	고등학교	735	0.0	1,152	0.1	936	0.1	1,142	0.1	1,550	0.1
	각종학교	51	0.6	76	0.9	107	1.4	102	1.2	107	1.2
	계	8,176	0.1	12,634	0.2	12,281	0.2	15,629	0.3	20,459	0.4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저자 재구성.

지역규모와 학교급에 따른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와 비율을 살펴보면 2019년을 기준으로 <표2-2>, 학교급에 관계없이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다문화가정 학생의 구성비율이 높다. 지역규모에 관계없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구성비율이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구성비율보다 높고,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구성비율이 다문화가정 고등학생의 구성비율을 상회한다.

표 2-2 지역규모와 학교급에 따른 다문화가정 학생 수와 비율, 2019년

단위: 명, %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각종학교		전체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전국	103,881	3.8	21,693	1.7	11,234	0.8	417	4.7	137,725	2.5
대도시	32,684	3.1	7,028	1.4	3,468	0.6	198	4.7	43,378	2.0
중소도시	37,239	3.1	7,669	1.3	4,300	0.7	161	8.2	49,369	2.1
읍면지역	31,856	6.9	6,569	3.3	3,297	1.6	58	2.2	41,780	4.8
도서지역	2,102	11.0	427	5.2	169	2.1	-	-	2,698	7.7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9).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저자 재구성.

부모의 출신국에 따른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와 구성비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전체 다문화가정 학생 대비 베트남 출신의 부모를 둔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은 2015년 20.9%, 2016년 24.2%, 2017년 26.5%, 2018년 29.1%, 2019년 30.6%로 매년 증가해 왔으며, 모든 연도에서 구성비율이 가장 크다<표2-3>. 다음으로 중국 출신 부모를 둔 다문화가정 학생의 구성비율이 모든 연도에서 가장 큰데, 2015년 20.8%, 2016년 21.3%, 2017년 22.2%, 2018년 22.3%, 2019년 22.5%로 매년 소폭으로 증가해 왔다. 중국 출신 부모를 둔 다문화가정 학생 다음으로 필리핀 출신 부모를 둔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이 큰데, 2015년 13.5%, 2016년 12.6%, 2017년 12.0%, 2018년 11.5%, 2019년 10.8%로 매년 소폭으로 감소해 왔으며, 일본 출신 부모를 둔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도 매년 감소해왔다.

표 2-3 연도 및 부모 출신국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및 비율

단위: 명, %

국적별	2015		2016		2017		2018		2019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일본	13,153	15.9	12,907	13.0	11,502	10.5	10,363	8.5	9,676	7.1
중국	17,182	20.8	21,130	21.3	24,338	22.2	27,200	22.3	30,883	22.5
중국(한국계)	10,773	13.1	12,293	12.4	12,367	11.3	12,522	10.2	13,265	9.7
대만	672	0.8	734	0.7	722	0.7	750	0.6	809	0.6
몽골	1,585	1.9	1,996	2.0	2,249	2.1	2,530	2.1	2,994	2.2
필리핀	11,103	13.5	12,540	12.6	13,123	12.0	14,093	11.5	14,804	10.8
베트남	17,247	20.9	23,968	24.2	29,019	26.5	35,568	29.1	41,961	30.6
태국	1,747	2.1	1,953	2.0	2,018	1.8	2,077	1.7	2,184	1.6
인도네시아	479	0.6	546	0.6	560	0.5	540	0.4	609	0.4
남부아시아	1,621	2.0	2,423	2.4	2,937	2.7	3,626	3.0	4,498	3.3
중앙아시아	1,790	2.2	2,524	2.5	3,249	3.0	4,498	3.7	5,577	4.1
미국	884	1.1	985	1.0	1,032	0.9	1,075	0.9	1,185	0.9
러시아	1,257	1.5	1,554	1.6	1,985	1.8	2,348	1.9	2,932	2.1
유럽	463	0.6	576	0.6	633	0.6	649	0.5	781	0.6
아프리카	233	0.3	299	0.3	361	0.3	412	0.3	497	0.4
오세아니아	125	0.2	161	0.2	166	0.2	196	0.2	218	0.2
기타	2,222	2.7	2,597	2.6	3,126	2.9	3,765	3.1	4,352	3.2
계	82,536	100	99,186	100	109,387	100	122,212	100	137,225	1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각 연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저자 재구성.

지역규모에 따른 부모 출신국별 다문화가정 학생의 수와 구성을 살펴보면 2019년을 기준으로 베트남 출신 부모를 둔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은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약 25%이며, 읍·면 지역은 41.5%이고 도서벽지는 47.7%로,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베트남 출신 부모를 둔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이 증가한다(표2-4). 중국 출신 부모를 둔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은 대도시는 25.8%, 중소도시는 27.1%, 읍·면 지역은 14.3%, 도서벽지는 47.7%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해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비율이 감소한다. 필리핀 출신 부모를 둔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은 대도시가 8.4%, 중소도시는 10.3%, 읍·면 지역은 13.5%, 도서벽지는 15.3%로 지역규모가 작아질수록 비율이 커지는 추세를 보인다. 또한, 읍·면 지역과 도서벽지 지역은 베트남, 필리핀 출신 부모를 둔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크며, 김이선 외(2018)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표 2-4 지역 및 부모 출신국별 다문화가정 학생 수 및 비율, 2019년

단위: 명, %

국적별	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도서벽지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학생 수	비율
일본	9,676	7.1	3,059	7.1	3,517	7.1	2,957	7.1	143	5.3
중국	30,883	22.5	11,211	25.8	13,395	27.1	5,991	14.3	286	10.6
중국(한국계)	13,265	9.7	5,475	12.6	5,283	10.7	2,352	5.6	155	5.7
대만	809	0.6	408	0.9	316	0.6	78	0.2	7	0.3
몽골	2,994	2.2	1,128	2.6	1,109	2.2	740	1.8	17	0.6
필리핀	14,804	10.8	3,660	8.4	5,084	10.3	5,646	13.5	414	15.3
베트남	41,961	30.6	10,891	25.1	12,456	25.2	17,327	41.5	1,287	47.7
태국	2,184	1.6	496	1.1	745	1.5	871	2.1	72	2.7
인도네시아	609	0.4	209	0.5	243	0.5	155	0.4	2	0.1
기타 남부 아시아	4,498	3.3	1,495	3.4	1,366	2.8	1,511	3.6	126	4.7
중앙아시아	5,577	4.1	1,658	3.8	2,175	4.4	1,704	4.1	40	1.5
미국	1,185	0.9	496	1.1	482	1.0	201	0.5	6	0.2
러시아	2,932	2.1	1,102	2.5	1,179	2.4	644	1.5	7	0.3
유럽	781	0.6	364	0.8	292	0.6	123	0.3	2	0.1
아프리카	497	0.4	241	0.6	188	0.4	65	0.2	3	0.1
오세아니아	218	0.2	93	0.2	95	0.2	28	0.1	2	0.1
기타	4,352	3.2	1,392	3.2	1,444	2.9	1,387	3.3	129	4.8
계	137,225	100	43,378	100	49,369	100	41,780	100	2,698	10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2019). 「교육통계분석자료집」. 저자 재구성.

2. 다문화가정 청소년 관련 지원정책의 현황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부)가 2006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과 2007년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계획’을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 및 학교생활 적응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황갑진 2011).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은 법률적으로 「교육기본법」 제4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에 근거하며(신혜진 2018),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교육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표 2-5 중앙정부 부처별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 예산 및 사업 수, 2018~2019년

	소요예산(백만 원)		사업 수(개)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교육부	14,229	12,260	10	10
외교부	10,323	8,576	2	2
산업통상부	50	50	1	1
고용노동부	1,900	1,900	1	1
여성가족부	39,930	18,830	15	14
총계	66,432	41,616	29	28

자료: 여성가족부(2019).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저자 재구성.

“다문화가족 자녀의 안정적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해 중앙부처 차원에서는 교육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9년 기준 5개 부처의 다문화가정 소요예산은 약 416억 2천만 원에 이르며<표 2-5>, 교육부(122억 6천만 원, 29.5%)와 여성가족부(188억 3천만 원, 45.2%)의 사업예산이 전체 중앙부처 다문화가정 자녀지원 사업예산의 약 75%를 차지한다. 중앙부처가 주관하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중 다문화가정 청소년 관련 지원사업은 한국어 교육, 대학생 멘토링, 진로지원 프로그램 운영, 교육기자재 지원, 상담교사 알선 등을 포함한다.

표 2-6 중앙정부 부처별 다문화가정 청소년 관련 지원정책 주요 사업내용, 2019년

부처	사업내용
교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언어교재 전자책 개발 및 '제7회 전국이중언어말하기대회(11월)' 개최를 통해 이중 언어 학습동기를 고취하고 재능개발 지원 ○ 다문화학생의 학교적응과 기초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대학생 멘토링'(4,000여 명) 사업을 내실화하여, 소외지역 멘토링 지원 강화 ○ 원격영상 진로멘토링(80회)을 통한 진로탐색 지원, 온라인 전문상담 및 다국어 진로소식지(중국어·베트남어) 제공 ○ 예비학교(한국어학급) 확대 및 교원역량 강화를 통해 개정 '한국어 교육과정'에 따른 체계적인 한국어교육 실시 ○ 법무부 정보연계를 통한 중도입국자녀 공교육 진입 지원 강화
외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ICA 드림봉사단 선발 시 다문화가정 청소년 참여기회 확대(가산점 부여) ○ KOICA 청년인턴 선발 서류심사 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가산점 부여 ○ 한국·베트남자녀 한글캠프 운영 및 교육 기자재 지원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청소년 특화 폴리텍 다문화학교 운영 지속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자녀-부모 관계 향상, 리더십 및 정체성 확립을 위한 자녀종합지원 서비스 확대('18년 152개소 → '19년 183개소) ○ 지역사회 주도의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운영 확대('18년 226개소 → '19년 230개소) ○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 확대(이중언어코치고용 '18년 120명 → '19년 150명) ○ 다문화가정 방문 부모교육, 자녀생활 지원, 한국어 교육을 제공하는 방문교육사업기간 확대(연 10개월→12개월)

자료: 여성가족부(2019).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저자 재구성.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2019년을 기준으로 266개 다문화가족 자녀지원 사업에 약 226억 2천만 원을 소요하고 있으며, 이 중 부산광역시의 예산이 약 46억 2천만 원(20.4%)으로 가장 크고, 경기도의 예산이 약 40억 7천만 원(18%)으로 그다음을 차지한다<표 2-7>. 강원도의 다문화가족 자녀지원사업 예산은 14억 6백만 원(6.2%)에 불과하나, 2018년(9개)에 비해 2019년(68개) 추진사업 수와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다.

표 2-7 지방자치단체별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 예산 및 사업 수, 2018~2019년

	소요예산(백만 원)		사업 수(개)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서울특별시	1,886	1,413	17	13
부산광역시	4,380.65	4,620	20	18
대구광역시	623.3	676	11	11
인천광역시	696	2,753	9	12

(계속)

	소요예산(백만 원)		사업 수(개)	
	2018년	2019년	2018년	2019년
광주광역시	133	204	8	10
대전광역시	741.5	623	10	10
울산광역시	216	223	6	6
세종특별자치시	25.5	71	5	6
경기도	3,634.08	4,071	29	30
강원도	914	1,406	9	68
충청북도	608	648	13	15
충청남도	457.5	558	16	18
전라북도	1,304	1,076	12	14
전라남도	1,173	1,975	9	9
경상북도	1,051	1,126	4	7
경상남도	952.5	845	9	13
제주특별자치도	191	328	4	6
총계	18,987	22,616	191	266

자료: 여성가족부(2019).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저자 재구성.

각 지자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역 어린이집, 이주배경 청소년지원센터, 민간사업체 등을 통하여 다양한 다문화가족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전달하는데, <표 2-8>에 2019년 각 지자체가 시행 중인 주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이 제시되어 있다. 사업별 추진 주체와 세부내용은 부록에 별첨하였다.

표 2-8 지방자치단체별 주요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내용 및 예산, 2019~2020년

지자체	주요사업내용(19년/20년 예산: 백만 원)
서울특별시	· 청소년 자녀, 부모 상담 지원 강화 (비예산) ·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시설 운영 (191/204) · FC서울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1.2) · 기초학습능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220) · 다문화가정 청소년 진로인식 향상 및 진로직업 체험기회 제공 (100/100) · 중도입국청소년 또래친구만들기 사업 (90)
부산광역시	· 다문화가정 자녀 도서 구입 지원 (3.5/3.6) · 자녀발달주기별 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254/275) · 다문화 아바학교 운영 (6/6) · 이중언어인재 양성사업 내실화 (52.2/56) ·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2,040/3,069)

(계속)

지자체	주요사업내용(19년/20년 예산: 백만 원)
대구광역시	· 다문화가정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 확산 (21.5/24.5) · 중도입국자녀 한국어 교육 내실화 및 질적 수준 제고 (35/40) · 특기적성 교육지원 (75/75)
인천광역시	· 다문화가정 사춘기자녀 캠프 지원 (52/52) · 다문화가정 청소년 스포츠 체험교실 (12) · 다문화가정 자녀 멘토링사업 추진 (89) · 다문화가정 발달장애 아동 정밀검사 및 치료 지원 (40/48)
광주광역시	· 다문화가정 자녀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20/20) · 중도입국자녀의 조기적응 지원 확대 및 지원 방식 다양화 (37.5/18.7) · 중도입국자녀의 심리 및 정서적 안정 지원 프로그램 운영 (35.2/3.6)
대전광역시	· 기초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432/303) · 기초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방문교육 서비스) (105/110) · 기초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5.8/6)
울산광역시	· 다문화가정 자녀 문화프로그램 운영 (15/15) · 다문화가정 자녀 방문학습 한국어 교육지원 (24/24) · 다문화가정 자녀 공부방 운영 (50/50)
세종 특별자치시	· 다문화가정 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 확산 (12.5/5) · 이중언어 인재 양성사업 내실화 (24.2/26.8) · 기초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한국어서비스 예산에 통합)
경기도	· 다문화가정 자녀 건강지킴 (1.6/2.4) ·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 지원 (5/10) · 찾아가는 지역돌봄서비스 운영 (40/40) · 다문화가정 학부모 진로지원 워크숍 (20/19) · 다문화가정 어린이 오케스트라 교육 (15/15) · 가정통신문 번역서비스 지원 (5/5) · 전국 다문화 말하기 대회 (25/25)
강원도	· 다문화가정 한국어교육 운영 (119/119) · 결혼이민자 및 자녀 교육지원 (244/244) · 다문화가정 엄마(아빠)나라 말 배우기 (10) · 군인장병과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글로벌 리더교육 (5/5)
충청북도	· 다문화가정 자녀 리더십 교육 (3/3) · 멘토링 프로그램 (2) · 다문화가정 교육 (0.1/0.1) · 취약계층 다문화가정 아동을 대상 다문화 이중언어 교실 (-/-) · 다문화가정 자녀 글로벌 브릿지 사업 (10/10)
충청남도	· 다문화가정 자녀 영재발굴 육성사업 (50) · 다문화가정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 (32/32) · 다문화가정 자녀 보조학습비 지원 (27/27)
전라북도	· 다문화가정 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 확산(인성·정체성 교육 및 스피치 아카데미 운영) (15/22) · 다문화가정 자녀의 성장주기에 따른 부모 교육 및 정보제공(아버지학교 운영) (15/15) · 기초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다문화가정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99/100) ·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진로의식 고취 및 진로기업 체험기회 확대(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100/100)

(계속)

지자체	주요사업내용(19년/20년 예산: 백만 원)
전라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 확대 (203/211) · 다문화가정 한글대회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27/27) · 취약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1,219/1,208) ·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 진로직업 체험기회 확대 사업 (36/36)
경상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청소년 나라사랑 체험 교육 (10/10) · 외국어, 예체능 등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지원(다문화가정 자녀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70/70) · 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사업 (10)
경상남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발달 진단 및 자녀성장 지원 (260/260) ·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 확대 (18/18) · 다문화가정 구강건강 지원 (3/3) · 토요일글로벌 학교 운영 (4/10)
제주 특별자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정 자녀 사회통합지원사업 (100) · 다문화가정 자녀 언어발달촉진사업 (30/30) · 중도입국자녀 교육 프로그램 운영 (40/40)

자료: 여성가족부(2019).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저자 재구성

제3장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결정 요인 분석



3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결정 요인 분석

1. 개요

다수의 선행연구가 제시한 바와 같이 사회적응의 정의 및 개념, 유형화, 사회적응 수준을 계량화한 지표에 대한 일반론이나 연구자들 간 일치된 견해를 찾기는 어렵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사회는 크게 학교와 가정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응을 개인이 직면하는 사회 환경과의 상호작용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며,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김미숙·김유경·김안나·김효진·성수미(2011)가 제시한 바와 같이 학교와 가정 구성원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세 차례의 전문가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을 학교와 가정생활의 실태와 구성원(교사, 교우, 부모)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구체화하였다. 또한, 이들의 학교 및 가정 생활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주관적 의견을 집약하였다. 다음으로, 한국청소년정책 연구원의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012~2016년 자료에 포함된 다문화가정 청소년

년의 교사, 교우, 부모와의 관계에 대한 설문을 이용하여 사회적응도를 계량화하고, 사회적응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 수혜 여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2. 면접조사

2.1. 조사방법

농촌지역에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교육하거나 지원하는 기관에 재직 중인 전문가를 대상으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다. 주요 회의 내용은 해당 기관 및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구성,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 학업성취도, 가정 환경, 다문화가정 청소년 관련 지원프로그램 수혜를 포함하며, 면접조사의 일시, 대상, 면접방법은 <표 3-1>에 제시되어 있다.

표 3-1 면접조사체계

사례	일시	대상	방법
1	2020. 2. 25.	· 농촌 지역아동센터 교사 2명(한국인) · 지역영농조합법인 대표 1명(한국인) · 농촌 다문화가정 학부모 1명(몽골인) · 농촌지역 일반고등학교 졸업생 1명(한국인)	FGI
2	2020. 3. 5.	· 농촌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1명(한국인)	개별면접
3	2020. 4. 7.	· 농촌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 2명(한국인, 일본인)	FGI

자료: 저자 작성.

2.2. 조사 결과

2.2.1.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증가

면접 결과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농촌지역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율이 예전보다 증가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읍 단위보다는 면 단위의 지역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예전보다 자주 관찰된다고 하였다.

〈사례 1〉 (다문화가정 학생이) 수적으로는 많이 증가했구요. (센터 내에) 다문화 학생 비율이 10명 중에 2~3명, 10% 내외였던 비중이 20년 가까이 지나면서 지금은 과반수를 넘으면서 60~70% 이상이 다문화가 됐어요(농촌 지역아동센터 교사 1).

〈사례 2〉 A중학교의 경우에는 전교생이 45명이었는데, 한 학년에 한 학급씩입니다. 한 학년에 보통 2명 정도씩 다문화가정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명 정도. 5~6명... 현재 재직 중인 B고등학교와 같은 경우는 전교생이 한 680명 정도 되는데 한 학년에는 다문화가정 친구가 한 2명 정도입니다. 읍보다는 면 지역에 다문화가정 학생이 더 증가했습니다(농촌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사례 3〉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프로그램 진행을 하는 편이긴 하거든요. 그런 학교 가면 한 반에 50% 이상이 다문화가정이고...(농촌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 1).

2.2.2.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 및 가정 생활 관련 요인

○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어 수준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어 구사 능력이 학교생활 적응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는데, 이는 한국어 능력이 학생의 교우관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주목할 것은 유년기에 한국어를 완전히 구사하지 못하는 학생은 성장과정 중 한국어를 체득하기 더욱 어려워지며, 이렇게 부족한 한국어 능력이 교우관계 형성에 지

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더욱이, 한국어가 부족한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교사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소통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사례 1〉 아이들의 어휘력부터가 어려서부터 조성 환경 자체에 어려움이 좀 있어서 그것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서로 간에 관계를 맺고 형성하는데 이 친구가 다문화여서 이 친구를 소외시키거나 이러는 상황은 아닌데 그 친구들이 소외되는 경우 중에 하나가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잘 형성이 되지 않을 때, 일반적인 아이들은 어휘력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해서 중학 생이나 나이가 들었을 때, 자기 의사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전달이 되지만, 다문화 친구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게 안 됐던 친구들은 인지의 문제에 있어서, 그것들에 대해서 격차가 생겨서 할 수 없이 서로 간에 어울리지 못하는 경향이 좀 두드러지고요. 교사에게 자기 의견을 피력하기 어려운 문제도 있고...(농촌 지역아동센터 교사 1).

더욱이,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족한 한국어 수준은 학업성취도 저하로 이어지며, 결국 상급학교 진학과 진로형성의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사례 1〉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못 읽어요. 요즘에는 1학년부터 서술형으로 나오잖아요. 수학 문제 같은 경우도... 그러면 한글이 안되는 애가 이제 서술형 수학을, 기본적으로는 수학은 할 수 있는데 문제를 못 풀어서 수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는 수학도 나중에는 뒤처지게 되죠...(중략) 문제를 읽어야 되는데 문제를 못 읽으니 이걸 내가 어떻게 풀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있기도 하더라고요(농촌 지역아동센터 교사 2).

〈사례 2〉 그제(부족한 한국어 능력) 지속적으로 연결이 되다 보니, 나중에 사회활동으로 나갔을 때도 할 수 있는 영역의 일들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진로의 한계가 생기는 거고. 그거는 굉장히 교착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문제로 야기될 수 있는...(농촌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사례 3〉 지금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도 한글교육은 포함이 안 됐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저밖에 모르는데 7차 교육과정 안에 유치원에서 한글을 가르칠 수가 없대요. 학교 병설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는 한글을 안 가르치고...(중략)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조금씩만 거들어주시기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초등학교 1학년 가면은 문장받아쓰기 하잖아요. 이미 한글을

체득하고 들어 왔다라고 생각을 한 가운데 그것들을 하다 보니까, 만약에 유치원 때 안 배웠던 애들은 부모님이 가르쳐주거나 어린이집을 다녀서 기어이 배웠다거나 이런 친구가 되지 않으면 초등학교에 가서 가나다라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학년 때부터 계속 처지는 거예요(농촌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 1).

〈사례 3〉 전반적으로 제가 볼 때는 가정 안에서 쓰는 어휘가 있잖아요. 어휘력이 우리 같은 이주 여성들은 아무래도 너무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게 국어라는 학습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그 어휘가 그렇게 안 되더라도 수업을 충분히 따라가는데 점점 커갈수록 어휘의 내용을 많이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데 어휘의 폭이 좁은 애들은 수업을 따라가기가 많이 어려워서 그런 건지 그거에 성적이 점점 낮아지더라고요. 수학이나 그런 것도 스토리텔링 그런 걸로 푸니까...(농촌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 2).

○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있어 어머니와의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장에도 중요하지만, 소통의 어려움이나 대화의 부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대한 어머니의 지원과 관심의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어머니의 모국어를 능숙하게 구사하지 못한다면, 결국 청소년과 어머니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양쪽 모두의 능숙한 한국어 구사 능력이 중요하다.

〈사례 1〉 그거는(부족한 한국어 능력)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쳐요. 근데 그것도 또 가정 내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엄마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들아. 아이들하고 엄마하고 밀접한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엄마가 한국어를 체득하는 데 한계가 있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엄마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구사하거나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은 극히 소수라고 보고요. 그게 안 되다 보니 아이들하고 엄마하고의 대화의 시간이 우리나라 친구들도 굉장히 적지만, 그보다도 적게 되고 이해의 폭도 굉장히 작아지고...(농촌 지역아동센터 교사 2)

〈사례 1〉 저는 그제(한국어 능력) 가장 크다고 보고요. 저희도 예전에는 애들만 교육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하기로는 부모와 소통이 안 되면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데 문제가 있거든요. 엄마의 품이 굉장히 좋은 건데 그거를 누리지를 못하잖아요(농촌 지역아동 센터 교사 1).

〈사례 3〉 갈등이 진짜 많이 일어나죠. 그니까 엄마들이 아예 아이한테 맡겨버려요. 학교 같은 것도, 대학교를 갈 때도 엄마는 아예 모르고 아이 스스로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도 ‘엄마 모르겠지’ 하면서 아예 말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갈등들이 있어서 저희 센터에서도 진로·진학 관련 교육을 주로 하긴 하는데 엄마들이 시간을 내기 어려워서 일을 해야 된다는 이유로 시간이 잘 안 맞아서 못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농촌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 1).

〈사례 3〉 수업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갈수록 수업이 어려워지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중단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 제 생각이예요. 주변에 다문화 학생들이 많아서. 그리고 어머니께서 한국어를 잘하시면 조금씩 조금씩 아이를 격려를 해주는 말도 나올 건데..(농촌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 2).

〈사례 3〉 정말 최소한의 언어밖에 습득이 안 된 엄마들은 ‘공부해’, ‘학교 그만두지 마’ 그러면 그만이고. 아이들을 격려하려는 마음의 표현이 어려운 것 같아요. 엄마들이. 그러니까...(중략)... 그런 식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말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엄마가 하면 도움이 될 텐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농촌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 1).

○ 농촌 다문화가정의 소득 수준

농촌지역의 저소득 남성은 국제결혼을 통해 배우자를 맞는 경우가 많으며, 농업인의 비율이 높은 농촌의 특성상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남편과 함께 무급가족종사자로 농업에 참여할 확률이 높다. 농촌 지역의 저소득 다문화가정의 부모는 경제적 문제와 생업으로 인하여 자녀교육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는 못하는 듯하며, 이 경우 학생과 부모와의 갈등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자녀와 부모와의 소통 부재가 자녀의 학업성취와 진학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

〈사례 2〉 아버님의 생업이, 만약에 경제 능력이 뛰어나다 그러면 흔한 인식이, 보통은 한국인 아내를 맞이할 것 아닙니까. 근데 경제적 능력이 약하다 보니까 외국인 아내를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외국인 아내가 들어왔을 때, 이 아내가 한국사회에서 경제력을 갖추기 위해서

직장을 구하거나 이런 것이 상당히 약하죠. 먹고는 살아요. 자녀는 생기지, 먹고는 살아야지 하니까 아버지께서 농업을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그 농업을 더 확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교육에 전혀 신경을 못 써주는 것이고...(농촌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사례 2〉 엄마한테 ‘다른 집은 놀러도 가고 많이 하는데, 우리는 놀러도 안 가고 맨날 집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게임에 빠져들죠. 놀이시설이 없으니까. 애들 여가시설이 없으니까. 게임 많이 하다 보면 엄마는 통제가 안 되지 할머니도 통제가 안 되지. 아버지가 들어왔을 때 공부 안 하고 있으니까 한소리 하지... 그런 갈등상황이 많이 존재했었어요. 그게 성적으로 또 반영이 되죠(농촌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 지역규모(읍·면)에 따른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지역규모와 학교급에 따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구성비율이 다르므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교우관계, 동료(또래)효과, 학교생활 적응의 실태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속한 지역 또는 지역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읍 지역보다는 면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가구소득과 생활환경이 비슷하기에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이 지역규모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한다.

〈사례 1〉 읍에 속해 있는 친구들이 더 민감해요. 상대적으로 읍은 보편적으로 일반가정들이 훨씬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거기에서 소외가 되기도 하고 분리가 되기도 하고 약간 그런 편이죠(농촌지역 영농조합법인 대표).

2.2.3.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 수혜 및 효과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해당 부모는 주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학교를 통해서 다문화가정 청소년 관련 지원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다. 공통적으로 한국어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 대부분이며, 프로그램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일부 있었다.

〈사례 1〉 다문화센터라고 여기 하나 있고. 국어교육이니까 가장 기초교육인 거예요. 한글을 읽을 수 있게끔. 가장 기본적인 한글교육. 그러면 잠정적으로 그 엄마의 한글 수준은 유치원 수준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엄마도 같이 성장해야 되고 아이도 같이 성장해야 되는데 지원의 한계도 있고 그러니까...(농촌 지역아동센터 교사 1).

이에 반해,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와 만족도가 상당하지만, 먼 지역이나 도서벽지와 같이 지역규모가 작은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접근성의 제약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사례 1〉 아이들을 보면, 갈 데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 집에서도 케어를 많이 받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센터에 와가지고 뭘 하나를 하면서 집중을 하고 자기를 표현할 줄 알면서 많이 아이들이 좀 밝아지게 되더라고요(농촌 지역아동센터 교사 2).

〈사례 3〉 이 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할 때만 모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또래하고 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귀한 시간이거든요, 그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만족도가 정말 높았어요(농촌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 1).

〈사례 3〉 이 센터에서 여기는 A시여도 버스 편이 정말 안 좋아요. 면으로 들어가려면 버스가 한 시간, 두 시간에 한 대씩 있고... 중도입국 자녀들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오기 불편해하는 면도 있죠(농촌지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지사 1).

반면, 한국어교육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농촌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원활한 한국 사회 동화를 위해 한국문화와 사회상규와 같은 내용을 다루는 지원프로그램의 확대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농촌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법적권리 보호를 위해 노동권 등 사회제도와 기본 법률을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의 확대 운영도 필요하다.

〈사례 1〉 문화교육, 한국문화, (중략) 한국의 교육열. 유교적인 문화를 알아야 하지만, 알고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것은 좋지만, 모르고서 그대로 흘러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인 문화라면은 예절...(농촌지역 영농조합법인 대표).

〈사례 2〉 누구나 일하면서 살아가는데 일하는 것에 대한 내가 받아야 되는 당연한 권리들, 누려야 되는 권리들, 성실히 해야 되는 의무들 이런 것들은 필수적이죠. 늘 노동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어릴 때부터 부모들도 잘 알아야 되죠. 그래야 자신감이 생겨요, 그 사람들도. 그 사회에 살아가면서...(농촌지역 인문계 고등학교 교사).

2.2.4. 소결

전문가 심층면접조사에서는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 및 가정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과 기제(機制)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 수혜의 주관적 효과에 대한 의견을 집약하였다.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어 구사능력이 교우관계에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어 능력이 부족할 경우 교우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편과 이로 인한 위축감과 고립을 호소할 수 있으며, 교우 사이에서 소외될 수 있다. 교우관계에 문제가 있는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학교 내에서 일반 학생들과 한국어로 의사소통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으므로, 한국어 말하기 능력이 향상될 기회가 감소할 수 있다.

학업성취와 관련해서도 한국어 능력이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할 경우, 교과목 성적이 저조할 가능성이 크며, 결국 이들의 진로 선택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 졸업 이후 사회진출 과정에서 직업선택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청소년의 인생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정생활 역시 한국어 구사 능력이 중요하다. 농촌 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남편과 함께 농업에 참여할 확률이 높으며, 일반가정 학부모에 비해 자녀의 교육과 양육에 소홀할 가능성이 크다. 어머니와 자녀 모두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할 경우, 소통 부재와 교육 관심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 수혜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였다. 전달체계의 문제점과 단편적인 프로그램의 구성으로 인해 프로그램의 효과

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프로그램의 참여 만족도가 상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공통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 특히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상호 동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3. 계량분석

3.1. 분석 개요

전문가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즉 학교 및 가정 생활 적응에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아보았다. 본 장에서는 2차 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선행연구와 심층면접을 통해 도출된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 교우, 교사와의 관계 형성과 관련된 설문을 토대로 사회적응도 지수를 산출하였다. 단순회귀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해당 부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사회적응도에 미치는 효과를 농촌과 도시 다문화가정 청소년 표본을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회귀전환모형(switching regression)을 이용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 참여 여부에 따른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결정요인을 분석하였고, 도시와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 간 지원정책 참여가 사회적응도 제고에 미치는 정책효과를 추정한 후 상호 비교하였다.

3.2. 자료 및 변수 설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자료는 2011년에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임의추출된 전국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해당 학부모 약 1,400쌍에 대한 연간종단조사이며, 현재 2019년 9차 조사까지 이루어졌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학교생활, 심리사회적응, 신체발달, 부모·자녀관계, 지원정책 등 다양한 영역에 대한 설문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현재 2017년 7차 조사자료까지 공개되어 있으므로 2011~2017년 자료까지 이용가능하다. 그러나 2011년에 시작된 1차 조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관련 지원정책 수혜에 대한 설문이 제외되어 있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련된 설문도 불완전하다. 2017년 자료에는 기존 연도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설문들이 상당수 포함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 연구에서는 2011년과 2017년의 자료는 제외하고 2012년(초등학교 5학년)부터 2016년(중학교 3학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패널에서 이탈하거나 새로 유입된 관측치는 표본에서 제외하였다. 어머니가 한국인이고 아버지가 외국인인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연구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표본에서 제외하였으며, 특정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응답이거나 결측인 경우 전년도 또는 후년도의 응답을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850개의 관측치를 갖는 통합패널(Pooled-panel)을 표집하였다.

분석에 이용된 주요 변수는 다문화가정 학생의 사회적응 관련요인(교우관계, 교사 및 부모와의 관계), 인구·사회학적 특성, 지원정책 참여 여부, 해당 어머니와 가구의 특성을 포함한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아버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 아버지의 나이, 교육 수준, 직업을 포함하는데, 이들 질문에 대한 무응답 건수가 매우 많으므로(N=250), 아버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주요 변수로 고려하지 않았다.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를 각각 5개, 5개, 6개의 설문으로 파악한다<표 3-2>. 개별설문은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의

리커트 척도(Likert-scale)로 응답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교우, 교사, 부모님과
의 관계를 각각 1~20점, 1~20점, 1~24점으로 점수화하였으며, 교우관계 항목
의 4번째 설문은 나머지 설문들과 내용이 반대이므로 역산처리하였다.

표 3-2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의 사회적응 관련 설문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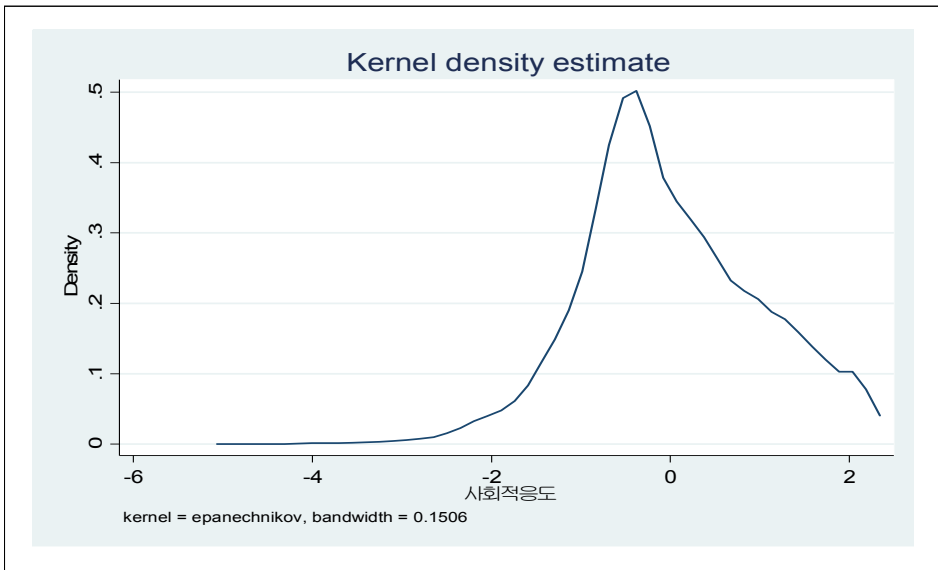
항목	설문	문항일관성 평가	응답방식
교우관계	1. 나는 우리 반 아이들과 잘 어울린다. 2. 나는 친구와 다투었을 때 먼저 사과한다. 3. 나는 내 짝이 교과서 또는 준비물을 안 가져왔을 경우에 같이 보거나 빌려준다. 4. 나는 친구가 하는 일을 방해한다. 5. 놀이나 모듬활동을 할 때 친구들이 내 의견을 잘 따라준다.	Cronbach's $\alpha=0.66$	
교사와의 관계	1. 나는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2. 나는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편하다. 3. 나는 교외에서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다. 4. 우리 선생님께서 나에게 친절하시다. 5. 나는 내년에도 지금 선생님께서 담임선생님을 해주셨으면 한다.	Cronbach's $\alpha=0.89$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부모님과의 관계	1. 부모님은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하신다. 2. 부모님은 학교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와주신다. 3. 부모님은 고등학교 혹은 대학에 진학하도록 격려하신다. 4. 부모님은 나에게 많은 관심을 보여주신다. 5. 부모님은 수업이나 학교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조언을 해주신다. 6. 부모님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물건이나 장소 등을 제공해 주신다.	Cronbach's $\alpha=0.91$	

자료: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012~2016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수준을 계량화할 목적으로 교우, 교사, 부모와의
관계를 사회적응을 형성하는 개별요인이라 상정하였다. Cronbach의 α 값을 이
용하여 각 개별요인을 구성하는 세부 문항들의 문항 일관성을 검정한 결과 3개 요
인 모두 높은 수준의 일관성을 보였다. 교우, 교사, 부모와의 관계형성도는 1~20
점, 1~20점, 1~24점으로 분포되어 있는 개별 변인이라 할 수 있으며, 사회적응도

는 결국 교우, 교사, 부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3차원 변수가 된다. 따라서,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방법을 이용하여 3차원의 개별 요인들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1차원 잠재(latent)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이를 표준정규화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도를 산출하였다. 사회적응도의 최솟값은 -4.91, 최댓값은 2.18이며, 분포상태는 아래와 같다<그림 3-1>.

그림 3-1 사회적응도 지수에 대한 커널밀도추정



자료: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012~2016년. 저자 계산.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련된 변수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별, 한국어 수준, 학업성적, 주관적 건강상태, 친한 친구 수, 거주 지역규모를 포함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어머니와 해당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련된 변수로 어머니의 나이, 교육 수준, 출신 국가, 한국어 수준, 한국 거주기간, 주관적 건강상태, 결혼상태, 가구소득, 가구원 수를 포함하였다<표 3-3>.

표 3-3 변수설명 및 설정방법

항목	설문내용	응답방식	설정방법
성별	학생의 성별	1. 남자 2. 여자	2번: 참조그룹 (reference group)
한국어 수준	한국어 말하기 능력	1. 전혀 못한다 2. 못하는 편이다 3. 잘하는 편이다 4. 매우 잘한다	항목별 점수 합산
	한국어 쓰기 능력		
	한국어 읽기 능력		
	한국어 듣기 능력		
주관적 건강상태	또래와 비교해 볼 때 학생의 건강상태	1. 매우 건강하다 2. 건강한 편이다 3.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4.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	점수
주관적 학업성취도	학생의 국어 성적	1. 매우 못하는 편이다 2. 못하는 편이다 3. 보통이다 4. 잘하는 편이다 5. 매우 잘하는 편이다	항목별 점수 합산
	학생의 영어 성적		
	학생의 수학 성적		
	학생의 사회 성적		
	학생의 과학 성적		
친구 수	학생의 친한 친구 수	명수	연속변수처리
지원정책 수혜	다문화가정 청소년 관련 지원정책 수혜	1. 방과후 수업료 지원 2. 문화공연 관람지원 3. 놀이공원 방문지원 4. 문화체험 활동지원 5. 특기적성 프로그램 제공 6. 심리적응 프로그램 제공 7. 물적지원 8. 대학생 멘토링 부여 9. 학습보조 선생님 지원 10. 이중언어 프로그램 제공 11. 한국어교육 지원 12. 학습지 지원 13. 급식비 지원 14. 진로지원 15. 기타	하나라도 받았으면 수혜로 처리
부모 결혼 상태	학생 어머니의 결혼상태	1.결혼 2.이혼 3.별거 4.사별 5.동거	2, 3, 4번: 미혼/비혼 1, 5번: 참조그룹
어머니의 국적	학생 어머니의 출신국가	1. 중국(한족, 기타민족) 2. 중국(조선족) 3. 베트남 4. 필리핀 5. 일본 6. 태국 7. 기타	1, 2번: 중국인 3, 4, 6번: 동남아시아 5, 7번: 참조그룹

(계속)

항목	설문내용	응답방식	설정방법
어머니의 연령	학생 어머니의 연령	연령	연속변수처리
한국 거주기간	학생 어머니의 한국 거주기간	거주 연, 월	개월로 환산
어머니의 교육 수준	학생 어머니의 최종학력	1. 중졸 이하 2. 고졸 3. 대학(2~3년제) 졸업 4. 대학교(4년제 이상) 졸업 5. 대학원 졸업(석박사 포함)	1, 2번: 고졸이하 3, 4번: 대졸이상 5번: 참조그룹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	한국어 말하기 능력	1. 전혀 못한다 2. 못하는 편이다 3. 잘하는 편이다 4. 매우 잘한다	항목별 점수 합산
	한국어 쓰기 능력		
	한국어 읽기 능력		
	한국어 듣기 능력		
어머니의 주관적 건강상태	학생 어머니의 전반적인 건강상태	1. 매우 나쁘다 2. 나쁜 편이다 3. 보통이다 4. 좋은 편이다 5. 매우 좋다	점수
가구소득	가정의 경제적 수준	월평균 소득수준(세전)	만원(연속변수), 로그화
가구원 수	가족 구성원의 수	명수	명(연속변수)
거주지역 규모	지역규모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	1, 2번: 참조그룹(도시) 3번: 농촌

자료: 다문화청청소년패널조사, 2012~2016년. 저자 구성.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별이 여성일 경우 참조그룹으로 처리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한국어 말하기, 쓰기, 읽기, 듣기 능력은 1: “전혀 못한다”, 2: “못하는 편이다”, 3: “잘하는 편이다”, 4: “매우 잘한다”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므로, 항목별 점수를 계산하고 합산하여 1점부터 16점까지의 한국어 능력 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를 생성하였다. 주관적 건강상태는 1: “매우 건강하다”, 2: “건강한 편이다”, 3: “건강하지 못한 편이다”, 4: “매우 건강하지 못하다”의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게 되어 있고 1점부터 4점까지의 연속변수로 처리하였다. 과목별(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주관적 학업성취도는 1: “매우 못하는 편이다”, 2: “못하는 편이다”, 3: “보통이

다”, 4: “잘하는 편이다”, 5: “매우 잘하는 편이다”로 응답하게 되어 있으므로, 항목별 점수를 계산하고 합산하여 주관적 학업성취도를 나타내는 변수를 생성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친한 친구 수는 연속변수로 처리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 수혜는 <표 3-3>의 총 15가지 지원정책 중 하나라도 수혜하였다면 수혜를 나타내는 이원변수를 생성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의 특성에 관해서서 부모의 결혼상태는 결혼 또는 동거를 참조그룹으로 설정하였으므로, 처리그룹은 미혼·비혼 부모를 나타낸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어머니의 국적은 일본과 기타국을 참조그룹으로 설정하였으며 중국 또는 중국 동포(조선족)일 경우 중국인으로, 베트남, 필리핀, 태국일 경우 동남아시아로 구분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어머니의 연령은 연속변수로 처리하였으며, 연·월로 측정된 한국거주기간은 개월 수로 환산하여 연속변수 처리하였다. 어머니의 교육 수준은 대학원 졸업자를 참조그룹으로 하여 중졸 이하 또는 고졸자는 고졸 이하로, 전문대학 또는 4년제 대학 졸업자를 대졸자로 구분하였다.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과 건강상태에 대한 변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같은 방식으로 설정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구특성에 대한 변수로 가구소득은 세전(稅前) 월평균 소득으로 측정되었으므로 변수분포의 정규성(normality)을 확보할 목적으로 자연로그를 취하였다. 가구원 수는 연속변수로 처리하였으며, 읍·면 거주 가구는 농촌으로, 참조그룹인 대도시 또는 중소도시 거주 가구는 도시가구로 설정하였다.

3.3. 분석모형

계량분석의 두 가지 목적은 ①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사회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도시와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분석하고 ②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다양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사회적응도에 미

치는 영향을 지원정책 수혜 여부에 따라 분석하고,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 수혜가 도시와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는 것이다. 먼저 분석목적 ①과 관련된 회귀모형(모형 1)을 각각 도시와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 표본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1) SA_i = \beta_0 + \beta_1 X_i + \beta_2 R_i + \beta_3 \mu_i + \epsilon_i$$

SA_i 는 사회적응도, X_i 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R_i 는 농촌을 나타내는 더미변수, μ_i 는 연도더미변수를 나타낸다. $\beta_0 \sim \beta_3$ 는 추정모수이며, ϵ_i 는 정규분포 백색잡음(white-noise)오차항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응도가 낮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원정책을 수혜할 유인이 사회적응도가 높은 다문화가정 청소년보다 클 수 있다. 지원정책 수혜 여부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기선택(self-selection)이라 할 수 있으며, 수혜 결정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관찰 가능한 요인(observables)과 관찰 불가능한 혼동요인(unobserved characteristics)에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면, 모형의 설명변수에 포함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성별, 가구 소득, 부모의 국적과 같은 특성은 관찰 가능한 요인에 해당한다. 반대로, 다문화가정 청소년 친구들의 지원정책 수혜 여부나 지원정책 수혜를 결정하는 개인적 성향과 같은 정보가 자료에 미포함될 경우, 이러한 요인은 관찰 불가능한 혼동요인에 해당하며 회귀모형의 오차항에 포함된다.

모형 내에서 관찰 가능한 정보를 통제한다 해도 혼동요인이 지원정책 수혜를 나타내는 변수와 상관관계를 가진다면, 지원정책 수혜를 나타내는 변수는 내생적(endogenous)이다. 이 경우 사회적응도를 종속변수로, 지원정책 참여변수를 처리변수로 설정된 모형을 추정할 경우 처리변수의 추정 모수는 비일관적(inconsistent)이며, 정책효과에 편의(bias)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인 정책효과 추정모형은 처리 및 통제 집단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성과

변수에 대하여 동질적이라는 전제하에 도구변수(instrumental variables)의 적률조건(moment conditions)을 이용하여 내생성을 통제한 후 처리효과를 계산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원정책 수혜로 결정된 처리집단과 통제집단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사회적응도, 즉 성과변수에 대하여 서로 다를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두 가지 가정하에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지원정책 참여가 사회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적합한 모형은 회귀전환모형(switching regression model)(Maddala 1983)(모형 2)이며 연립방정식 체계(system of equations)는 아래와 같이 주어진다.

$$(2) S_i^* = \alpha_1 + \alpha_1 X_i + \alpha_2 \mu_i + \epsilon_{si}$$

$$(3) SA_{1i} = \beta_1 + \beta_{11} X_i + \beta_{21} \mu_i + \epsilon_{1i}$$

$$(4) SA_{0i} = \beta_0 + \beta_{10} X_i + \beta_{20} \mu_i + \epsilon_{0i}$$

방정식 (2)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관련 지원정책 수혜를 결정하는 방정식(참여 방정식)이며 방정식 (3)과 (4)는 각각 지원정책 수혜, 미수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도를 결정하는 방정식이다. X_i 는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해당 가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나타내며, S_i^* 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 수혜를 나타내는 잠재변수(latent variable)로 $S_i^* > 0$ 이면 $S_i = 1$ 이고, 그렇지 않으면 $S_i = 0$ 이다. μ_i 는 연도터미 변수이며 SA_{1i} 와 SA_{0i} 는 각각 지원정책 수혜, 미수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도를 나타내는 성과변수이다. ϵ_{si} , ϵ_{1i} , ϵ_{0i} 는 각 방정식의 정규 분포 백색잡음 오차항이다. α_1 , α_2 , β_0 , β_1 , β_{11} , β_{10} , β_{21} , β_{20} 은 추정모수를 나타낸다.

완비정보 최대우도법(full-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최대 우도 함수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5) L = \prod_{i=1}^N \left\{ \int_{-INF}^{-x_i\gamma} f_{s0}(\epsilon_s, \epsilon_{0i}) d\epsilon_s \right\}^{S_i=0} \left\{ \int_{-x_i\gamma}^{INF} f_{s1}(\epsilon_s, \epsilon_{1i}) d\epsilon_s \right\}^{S_i=1}$$

여기서 $f_{s0}(\epsilon_s, \epsilon_{0i})$ 는 방정식(2)의 오차항과 방정식 (4)의 오차항 간의 결합확률 밀도함수, $f_{s1}(\epsilon_s, \epsilon_{1i})$ 은 방정식 (2)의 오차항과 방정식 (3)의 오차항 간의 결합확률밀도함수이다.

회귀전환모형의 식별(identification)조건은 두 결합 확률밀도함수의 비선형성(non-linearity)인데, 모수 추정의 정확도를 기하기 위해 제외제약조건(exclusion restriction)의 만족을 고려해야 한다. 즉, 다문화가정 청소년 관련 정책 수혜와 상관관계가 크고, 사회적응도와 상관관계가 적은 1개 이상의 변수가 참여방정식의 우변에 포함되는 것인데, 다문화청소년패널자료에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할 만한 변수를 찾기는 어려웠다. 하지만, Gregory(2015)가 언급했듯이 회귀전환모형의 식별은 제외제약조건의 만족보다는 두 개의 결합밀도함수의 분포에 대한 설정이 결정적이므로 이 연구에서 제외제약조건은 고려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두 오차항의 분포를 각각 결합정규분포(joint normal distribution)로 가정하여 회귀전환모형을 추정한다. 하지만, 이는 지나치게 제한적이며, 오차항의 실제 분포가 결합정규분포와 크게 다를 때 모수 추정치는 매우 부정확해질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정확한 모수추정을 목적으로 각각의 결합정규분포함수를 코플러(copula)결합분포함수로 대체하여 모형을 추정하였다.

임의의 확률변수 x_1 과 x_2 에 대하여 $u_i = F_i(x_i)$ ($i = 1, 2$)을 확률변수의 한계분포함수라고 한다면, 이들의 함수 값은 0과 1 사이에서 정의되는 균등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따른다. $F(x_1, x_2)$ 를 두 확률변수의 결합분포함수라고 한다면, ‘Sklar의 정리’(1959)에 의해 코플러 함수가 $C : [0, 1]^2 \rightarrow [0, 1]$ 존재하며, 아래의 방정식 (6)을 만족한다.

$$(6) F(x_1, x_2) = C\{F_1(x_1), F_2(x_2); \theta\} = C(u_1, u_2; \theta)$$

여러 가지의 코플러 분포함수 중 Gaussian, Ali-Mikhail-Haq(AMH), Farlie-Gumbel-Morgenstern(FGM), Frank, Plackett 코플러 함수를 이용하였으며<표 3-4>, 각각의 한계분포함수, 즉 $F_i(x_i)$ ($i = 1, 2$)는 정규분포를 가진다고 가정하였다. θ 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종속상관계수이다. 5가지의 코플러 함수들을 각각의 결합분포함수로 대용(代用)하였으므로 총 25가지의 모형이 선택 가능하며, 오차항의 사전적 분포를 가장 잘 반영한 모형은 최대우도 값을 가진다(Winkelmann 2012). 따라서, 25가지의 최대우도 값을 가지는 모형을 최적 코플러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표 3-4 5가지의 코플러(copula)결합분포함수

Copula	$C(u_1, u_2; \theta)$	θ 의 범위	보조 θ 의 범위
Gaussian	$\Phi_2\{\Phi^{-1}(u_1), \Phi^{-1}(u_2); \theta\}$	$-1 \leq \theta \leq 1$	$\tanh^{-1} \theta$
AMH	$u_1 u_2 \{1 - \theta(1 - u_1)(1 - u_2)\}^{-1}$	$-1 \leq \theta \leq 1$	$\tanh^{-1} \theta$
FGM	$u_1 u_2 \{1 + \theta(1 - u_1)(1 - u_2)\}$	$-1 \leq \theta \leq 1$	$\tanh^{-1} \theta$
Frank	$-\theta^{-1} \log \left\{ 1 + \frac{(e^{-\theta u_1} - 1)(e^{-\theta u_2} - 1)}{e^{-\theta} - 1} \right\}$	$-\infty < \theta < \infty$	θ
Plackett	$\frac{r - \sqrt{r^2 - 4u_1 u_2 \theta(\theta - 1)}}{2(\theta - 1)}$	$0 < \theta < \infty$	$\ln(\theta)$

주: Plackett 코플러에 대해서, $\gamma = 1 + (\theta - 1)(u_1 + u_2)$

자료: Hasebe(2013)의 자료를 저자 재구성.

이 연구에서는 처리집단에 대한 평균처리효과(average treatment effects on the treated: ATET)를 추정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 관련 지원정책의 수혜가 사회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ATET는 아래와 같이 정의된다.

$$(7) E(SA_1 | x, S=1) - E(SA_0 | x, S=1)$$

$E(SA_1|x, S=1)$ 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을 수혜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평균적 사회적응도를 나타내며, $E(SA_0|x, S=1)$ 는 반사실적(反事實的)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을 수혜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만약에 지원정책을 수혜하지 못했을 경우의 평균적 사회적응도를 나타낸다. 또한, 조건부 처리집단에 대한 평균처리효과(conditional average treatment effects on the treated: CATET)(Abrevaya et al. 2015)를 추정하여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 수혜가 도시 및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CATET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8) E(SA_1|x=x_1, S=1) - E(SA_0|x=x_1, S=1)$$

여기서 x_1 은 도시와 농촌을 구분하는 더미변수의 자료값(realized value)이다. ATET와 CATET는 자료값과 추정모수의 비선형결합이므로, 500회 반복(iteration) 비모수 부트스트랩 표준오차(non-parametric bootstrap standard error)를 계산하여 점근적 정규화 신뢰구간(asymptotic normal-based confidence interval) 내에서 통계적 추론을 하였다.

3.4. 분석 결과

3.4.1. 기초통계분석 결과

주요 변수들의 평균값 또는 구성비율을 도시와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계산하여 도시와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이점을 파악하였다. 분산분석(ANOVA)을 이용하여 집단 간 평균값 또는 비율의 차이를 검정하였다(표 3-5).

표 3-5 요약통계량

변수	도시 다문화가정 청소년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	P값
학생특성			
남성=1(%)	51.11	45.66	0.0001
사회적응 수준	-0.02 (0.015)	0.05 (0.024)	0.0167
한국어 수준	14.75 (0.030)	14.71 (0.045)	0.5245
주관적 건강상태	3.39 (0.010)	3.38 (0.015)	0.8660
학업성취도	16.14 (0.058)	16.27 (0.088)	0.2169
친한 친구 수	8.39 (0.098)	8.14 (0.142)	0.1462
어머니 및 가구 특성			
결혼/동거=1(%)	94.52	96.53	0.0010
어머니 출신국가(%)			
중국	8.01	5.27	
중국동포	19.07	16.47	
베트남	2.83	1.96	
필리핀	23.27	31.54	<.0001
일본	37.54	36.53	
태국	3.56	5.04	
기타	5.72	3.19	
어머니 나이	43.44 (0.084)	43.86 (0.122)	0.0046
어머니 한국 거주기간	183.00 (0.704)	190.50 (0.868)	<0.0001
어머니 교육 수준(%)			
고졸 이하	56.12	59.55	
대졸	43.27	39.89	0.0504
대학원졸 이상	0.61	0.56	
어머니 한국어 수준	12.85 (0.035)	12.98 (0.050)	0.0368
어머니 주관적 건강상태	3.45 (0.012)	3.46 (0.019)	0.6221
가구소득	248.60 (1.879)	212.00 (2.302)	<0.0001
가구원 수	4.55 (0.018)	5.07 (0.031)	<0.0001
지원정책 수혜=1(%)	43.14	41.12	0.1492

주: 표준편차는 괄호 안에 기입, 퍼센트로 표시된 항목은 해당 항목의 구성비율을 의미함.

자료: 다문화청소년패널자료 2012~2016년 이용.

집단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항목을 살펴보면, 먼저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도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비해 여성일 확률과 사회적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어머니 및 가구 특성과 관련해서, 농촌 다문

화가정 청소년의 어머니는 도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어머니에 비해 결혼 또는 동거상태일 확률이 높았으며,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어머니의 출신국은 양 집단 간 크게 다른 특징을 보였다. 농촌 다문화가정의 어머니는 필리핀 또는 태국 출신일 확률이 도시 다문화가정 어머니에 비해 높게 나타난 반면, 중국이거나 중국동포, 베트남, 일본, 기타국 출신일 확률은 낮게 나타났다.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 어머니의 한국 거주기간이 도시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 거주기간보다 다소 길 확률이 크며, 교육 수준은 도시 다문화가정 어머니에 비해 농촌 다문화가정 어머니가 낮을 확률이 크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은 도시와 농촌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가구소득은 농촌 다문화가정이 도시 다문화가정에 비해 상당히 낮을 확률이 크다. 도시 다문화가정에 비해 농촌 다문화가정의 가구원이 많을 확률이 크다.

3.4.2. 회귀모형분석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이 사회적응도에 미치는 영향을 도시와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 대상으로 각각 분석하였다(표 3-6). Wald 검정을 이용하여 도시와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집단 간 이질성을 검정하였으며, 검정통계량 $\chi^2(22) = 45.01$ 로 두 집단 간의 동질성을 나타내는 귀무가설을 1% 수준(임계치 40.29)에서 기각할 수 있었다. 이는 모형에서 사용된 관찰가능한 변수들의 모수 값 벡터(parameter vector)가 사회적응도에 대하여 도시와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 간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여성이거나 건강상태, 한국어 수준, 학업성취도, 친한 친구 수가 높거나 많을수록 사회적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중국, 동남아시아 출신이거나 중국동포 어머니를 둔 도시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본이나 기타국 출신의 어머니를 둔 도시 다문화가정 청소년보다 사회적응도가 낮게 나타났다. 어머니의 나이가 많을수록,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도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

응도가 낮게 나타났다.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한국어 수준, 건강상태, 학업성취도, 친한 친구 수가 높거나 많을수록 사회적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국적과 해당 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도와 관계는 도시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 중국인이거나 중국동포 어머니를 둔 농촌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도는 일본이거나 기타국 출신의 어머니를 둔 농촌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도에 비해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반면, 동남아시아 출신의 어머니를 둔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본이나 기타국 출신의 어머니를 둔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어머니보다 사회적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 어머니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한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가구원이 많을수록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도는 낮게 나타났다.

표 3-6 회귀분석 결과(모형 1)

변수	도시 다문화가정 청소년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	
학생특성				
남성(참조그룹: 여성)	-0.092**	(0.045)	-0.075	(0.073)
한국어 수준	0.052***	(0.009)	0.032**	(0.016)
건강상태	0.209***	(0.030)	0.234***	(0.050)
학업성취도	0.087***	(0.006)	0.103***	(0.009)
친한 친구 수	0.015***	(0.003)	0.020***	(0.005)
지원정책 수혜	0.034	(0.032)	0.063	(0.052)
어머니 및 가구 특성				
미혼(참조그룹: 결혼, 동거)	-0.089	(0.116)	0.026	(0.181)
어머니 국적(참조그룹: 일본, 기타)				
중국인, 중국동포	-0.230***	(0.064)	0.089	(0.120)
동남아시아	-0.111*	(0.059)	0.180*	(0.092)
어머니 나이	-0.010*	(0.005)	0.003	(0.009)
어머니 한국 거주기간	0.000	(0.001)	0.002	(0.001)
어머니 교육 수준(참조그룹: 대학원졸 이상)				

(계속)

변수	도시 다문화가정 청소년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	
고등학교 졸업 이하	-0.417*	(0.226)	-0.867***	(0.143)
대학교 졸업	-0.428*	(0.226)	-0.981***	(0.133)
어머니 한국어 수준	0.072***	(0.010)	0.059***	(0.017)
어머니 주관적 건강상태	0.009	(0.024)	-0.005	(0.036)
ln(가구소득)	0.018	(0.051)	-0.112	(0.070)
가구원 수	-0.015	(0.023)	-0.054*	(0.029)
조사연도(참조그룹: 2012년)				
2013년	0.026	(0.031)	-0.002	(0.046)
2014년	0.162***	(0.036)	0.233***	(0.062)
2015년	0.231***	(0.043)	0.195***	(0.072)
2016년	0.264***	(0.048)	0.188**	(0.085)
상수항	-3.146***	(0.490)	-2.730***	(0.623)
N	4,065		1,785	
R^2	0.2435		0.2790	

주: 괄호 안에 기입된 표준오차는 학생 단위의 군집표준오차(cluster standard error)임.

* p<0.1 ** p<0.05 *** p<0.01

자료: 다문화청소년 패널자료 2012~2016년 이용.

3.4.3. 회귀전환모형 분석 결과

최적모형을 선택하기 위해 회귀전환모형의 오차항 $(\epsilon_{si}, \epsilon_{1i})$ 와 $(\epsilon_{si}, \epsilon_{0i})$ 의 결합 분포함수 각각에 대하여 5개의 코플러분포함수를 대입하고 완전정보 최대우도 법을 활용하여 총 25개의 모형을 추정하였다.³⁾ 이 결과 $(\epsilon_{si}, \epsilon_{0i})$ 의 결합분포함수에 대해선 AMH 코플러와 $(\epsilon_{si}, \epsilon_{1i})$ 의 결합분포함수에 대해선 Plackett 코플러를 동시에 적용한 모형의 로그우도 값(-11,008.68)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므로, 이 연구에서는 AMH-Plackett 코플러 모형을 최선호 모형으로 이용하였다.

먼저 참여방정식 추정 결과를 살펴보면<표 3-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업성취도가 높을수록, 친한 친구 수가 많을수록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원정책을 수

³⁾ Takuya Hasebe(2013)의 “switchcopula” 프로그램을 저자가 응용·보완하여 이용함.

혜할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중국 또는 중국 동포 출신의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일본 또는 기타국 출신의 어머니를 둔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비해 지원 정책 수혜의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어머니의 연령이 높을수록, 한국 거주기간이 길수록,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한국어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지원정책 수혜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 수혜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은 도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비해 지원정책을 수혜할 확률이 낮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 지원정책을 미수혜하는 집단은 한국어 수준, 건강상태, 학업성취도, 친한 친구 수가 많거나 높을수록 사회적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가 중국 혹은 중국 동포 출신이거나,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한국어 수준이 낮을수록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도가 낮게 나타났으나, 어머니의 연령, 한국 거주기간, 건강상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가구소득, 가구원 수, 농촌 정주 여부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 지원정책을 수혜하는 그룹은 여학생이거나 한국어 수준, 건강상태, 학업성취도, 친한친구 수가 많거나 높을수록 사회적응도가 높게 나타났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어머니의 출신국, 교육 수준, 연령, 한국 거주기간은 해당 청소년의 사회적응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가구소득, 가구원 수, 농촌 정부 여부도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θ_0 추정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 지원정책을 미수혜하는 그룹의 사회적응도를 증가시키는 혼동요인이 참여방정식의 혼동요인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θ_1 추정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중 지원정책을 수혜하는 그룹의 사회적응도를 감소시키는 혼동요인이 참여방정식의 혼동요인과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귀전환모형 이용의 타당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ϵ_{si} 와 ϵ_{1i} 의 종속성과 ϵ_{si} 와 ϵ_{0i} 의 종속성을 동시에 검정한 결과

Wald 통계량은 18.81이며 오차항들의 독립성과 관련된 귀무가설을 1%의 유의수준에서 기각할 수 있었다. 이는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의 수혜, 미수혜 그룹이 사회적응도에 대하여 이질적이므로 회귀전환모형이 일반적인 처리효과 모형보다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3-7 회귀전환모형(switching regression)추정 결과(모형 2)

변수	참여방정식		지원정책 미수혜		지원정책 수혜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도						
청소년의 사회적응도						
학생특성						
남성(참조그룹: 여성)	-0.023	(0.045)	-0.055	(0.044)	-0.119**	(0.050)
한국어 수준	-0.002	(0.011)	0.046***	(0.009)	0.046***	(0.011)
건강상태	0.014	(0.032)	0.212***	(0.033)	0.203***	(0.035)
학업성취도	0.014**	(0.006)	0.091***	(0.006)	0.094***	(0.007)
친한 친구 수	0.015***	(0.003)	0.020***	(0.003)	0.014***	(0.003)
부모 및 가구 특성						
미혼(참조그룹: 결혼 또는 동거)	0.142	(0.120)	-0.176	(0.112)	-0.007	(0.129)
어머니 국적						
(참조그룹: 일본, 기타)						
중국인, 중국동포	-0.147**	(0.066)	-0.185***	(0.064)	-0.116	(0.076)
동남아시아	-0.039	(0.058)	-0.001	(0.055)	-0.064	(0.065)
어머니 나이	0.013**	(0.005)	-0.005	(0.005)	-0.008	(0.005)
어머니 한국 거주기간	-0.002***	(0.001)	0.000	(0.001)	0.000	(0.001)
어머니 교육 수준						
(참조그룹: 대학원졸 이상)						
고등학교 졸업 이하	-0.493*	(0.272)	-1.053***	(0.142)	-0.220	(0.240)
대학교 졸업	-0.493*	(0.271)	-1.084***	(0.141)	-0.284	(0.240)
어머니 한국어 수준	0.036***	(0.011)	0.087***	(0.010)	0.051***	(0.012)
어머니 주관적 건강상태	-0.037	(0.027)	-0.005	(0.025)	0.004	(0.029)
ln(가구소득)	-0.231***	(0.051)	-0.060	(0.050)	-0.014	(0.057)
가구원 수	0.045**	(0.020)	-0.024	(0.020)	-0.037	(0.023)
농촌(참조그룹: 도시)	-0.127**	(0.049)	0.018	(0.050)	0.084	(0.057)
조사연도						
(참조그룹: 2012년)						
2013년	-0.357***	(0.050)	-0.072	(0.063)	0.067	(0.041)

(계속)

변수	참여방정식	지원정책 미수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도		지원정책 수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도	
2014년	-0.958*** (0.055)	-0.030	(0.090)	0.323*** (0.070)	
2015년	-0.971*** (0.058)	0.035	(0.091)	0.314*** (0.072)	
2016년	-1.127*** (0.063)	0.010	(0.098)	0.423*** (0.078)	
상수항	1.161** (0.523)	-2.218*** (0.472)		-2.836*** (0.524)	
θ_0	0.670 (0.166)				
θ_1	0.600 (0.178)				
Log likelihood	-11008.681				
Wald test of independence	Test statistic=18.814 with P-value<0.001				
N	5,850				

주: 괄호안에 기입된 표준오차는 학생단위의 군집표준오차(cluster standard error)임.

* p<0.1 ** p<0.05 *** p<0.01

자료: 다문화청소년 패널자료 2012~2016년 이용.

회귀전환모형의 추정모수를 이용하여 ATET와 CATET를 추정하였다. 500회 반복 비모수 부트스트랩 표준오차를 계산한 후 점근적 정규화 신뢰구간 내에서 ATET와 CATET에 대한 통계적 추론을 하였다(표 3-8).

표 3-8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 수혜가 사회적응도에 미치는 효과

대상	ATET, CATET	표준오차
전체 다문화가정 청소년	0.27***	0.097
도시 다문화가정 청소년	0.24*	0.130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	0.33***	0.023

주: 500회 반복한 비모수 부트스트랩 표준오차를 사용하였음.

* p<0.1 ** p<0.05 *** p<0.01

자료: 다문화청소년 패널자료 2012~2016년 이용.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의 수혜는 전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도를 0.27만큼 증가시켰으나, 도시와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해서 지원정책 수혜가 사회적응도 향상 미치는 효과는 서로 다르게 나타났으며, 정책효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지원정책 수혜는 도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

적응도를 0.24만큼 증가시켰으나,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도는 0.33만큼 증가시켰다. 두 집단 간 평균적 정책효과와 차이, 0.09는 점근적 정규화 신뢰구간 10%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또한, Kolmogorov-Smirnov 검정을 이용하여 두 집단 간 처리집단에 대한 평균 처리효과 분포의 동질성을 검정한 결과, 검정통계량 1.15로 두 집단간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는 귀무가설을 1% 수준에서 기각시킬 수 있었다.

4. 소결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해당 가정의 여러 가지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조사 및 계량분석 결과에 따르면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생과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다. 심층면접조사에서는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미흡한 한국어 능력이 교우관계, 어머니 및 교사와의 원활한 소통에 장애가 되며, 더 나아가 학생의 학업성과 진로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나타났다.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 어머니의 미흡한 한국어 능력 역시 해당 가정 청소년과의 소통 장애 요인이며 사회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결과에서도 농촌과 도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청소년과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조사에서는 농촌 다문화가정의 가구소득이 사회적응과 큰 관련이 있을 수 있다고 나타났으나, 회귀모형에서 가구소득은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도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는 박대식·마상진·권인혜(2011), 김승경(2013)의 연구 결과와 상반되는 맥락인데,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에서 가구소득이 세전 월평균 소득으로만 집계

가 되고 가계부채, 소비지출액 등 추가적인 경제 관련 변수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해당 정보를 모형 내에서 적절히 통제할 방법이 없었기에 가구소득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도와의 관계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계량분석 결과 다문화가정 청소년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 수혜비율이 높았는데, 이는 정호용(201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이는 어머니의 한국어 및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 관련 정보수집능력이 높다는 점에서 이해되고 심층면접조사에서도 동일한 내용이 제시된 바 있다.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은 도시에 비해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수혜 확률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책효과는 도시 다문화가정 청소년보다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효과가 있었다. 따라서, 다문화가정 청소년 지원정책의 사회적응도 제고 효과 극대화를 목적으로 지원정책의 대상 선별과 전달체계의 개선이 필요하다.

지원정책 수혜와 관계없이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도가 도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비해 다소 높았지만 이러한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제4장

요약 및 결론



4

요약 및 결론

1. 요약 및 결론

국제결혼의 증가와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해 우리나라는 다문화사회로 진입하였고,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원활한 한국사회 동화 및 적응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농촌 과소화와 고령화에 따른 농업 노동력 부족을 우려하는 현실에서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원활한 사회적응은 지속가능한 농촌발전의 견지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이 연구는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의 형성요인을 식별하고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개인이 사회환경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사회적응이라 전제할 때,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에게 사회는 학교와 가정이 중심이며, 사회적응은 결국 학교(교우, 교사) 및 가정 구성원(부모)과의 상호작용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심층면접조사 결과 농촌 지역규모(읍·면), 가구소득,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에 따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즉 학교 및 가정생활 적

응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사회적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량분석 결과 역시 이들의 한국어 능력이 사회적응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다문화가정 청소년 관련 지원정책 수혜 확률이 높게 나타났다. 도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비해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지원정책 수혜 확률이 낮은 반면, 지원정책 수혜가 사회적응도 제고에 미치는 효과는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도 향상 극대화를 목적으로 지원정책 대상 선별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확충뿐만 아니라 정책 수혜도를 제고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요인은 청소년과 어머니의 한국어 수준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이들 모두의 한국어 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한데, 특히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유년기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확충이 중요하다. 또한, 농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프로그램 전달체계(접근성)의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과 어머니의 사회적응 제고를 목적으로 한국의 사회제도, 관습, 문화 등을 다루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율적 전달이 중요하다. 농촌 현장의 다문화가정 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의 담당자들이 강조하는 것은 단순히 농촌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보다는 이들이 일반가정 자녀 및 학부모와 서로 어울리며 한국 사회의 관습과 문화의 체득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의 확대였다. 다문화 및 일반인 가정 청소년과 부모 모두가 다양한 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는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포용적 농촌사회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1.1.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안

이 연구는 그간 많이 다뤄지지 않았던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 적응 실태와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아래와 같은 연구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며, 이에 따라 향후 이들의 사회 적응도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정책개발을 위한 후속 연구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먼저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제공하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를 주요 2차 자료로 이용하였다. 데이터의 유효 표본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의 국제결혼자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전체 연령의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 또는 중도입국 자녀, 탈북자 자녀, 비(非)학생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 적응 실태를 구분하여 논의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만 19세 미만 전체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 적응 실태를 다루는 연구가 필요하며, 연령별, 가정 유형별로 구분 분석이 요구된다. 특히,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업, 진로 및 진학 지원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통계자료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체 학생 대비 다문화가정 학생의 비율은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감소하며, 이와 같은 추세가 농촌 지역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업 중단 또는 진학률이 도시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비해 저조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업 중단 원인 분석과 농촌 지역의 비(非)학생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교육지원 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다문화가정 청소년, 특히 농촌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관련된 통계생산 확대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심층면접조사 결과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읍과 면에 정주하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 적응 실태에 유의한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 읍·면에 따른 구분 분석이 필요하였지만, 해당 변수가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며, 거주지역도 5개 권역으로 대분류되어 있었다. 따라서, 지역규모와 거주지역에 따른 농촌 다문화가정 청

소년의 정확한 사회적응 실태 파악을 목적으로 조사참여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읍·면 구분 및 지역 식별 코드를 활용할 수 있는 통계생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면·리 단위 지역과 같이 지역규모가 매우 작은 지역에 위치한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의 정확한 파악을 위해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크기의 표본 수를 확보하고 정밀한 가중치 계산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부 록

부표 지방자치단체 및 추진주체별 주요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내용 및 예산, 2019~2020년
(계속)

추진주체	지원내용 및 예산
	<p>다문화가정 청소년 자녀와 부모 상담 지원 강화 (비예산)</p> <p>추진주체: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p> <p>○ 중도입국 자녀·다문화가족 자녀 및 부모 상담과 심리검사</p> <p>- 중도입국·다문화가정의 청소년 및 가족대상 상담 의뢰 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역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시간으로 상담예약 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원이 전문상담서비스 제공</p> <p>- 중도입국·다문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원 연계 등 서비스 제공</p> <p>○ 중도입국 자녀·다문화가족 위기청소년 상담 시 필요한 경우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로 연계</p>
	<p>다문화가족 자녀 보육시설 운영 (191/204백만 원)</p> <p>추진주체: 서울시→시·군·구→지정 어린이집 운영</p> <p>○ 다문화 아동들과 일반아동을 함께 보육.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를 위해 다문화 통합어린이집을 지정 및 운영</p>
	<p>FC서울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1.2백만 원)</p> <p>추진주체: 서울시, FC서울, 후원기업</p> <p>○ 다문화·일반자녀가 함께하는 유소년 축구교실 및 리그전</p> <p>○ FC서울 홈경기 관람 등 다문화가족이 함께하는 체험활동</p>
서울특별시	<p>기초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220백만 원)</p> <p>추진주체: 계획 수립(서울시)→사업공모(서울시 홈페이지)→심의위원회 개최(기관 선정)→사업자와 협약체결(서울시·선정기관)→사업 추진(선정기관)</p> <p>○ 사업명: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 자녀 방문학습</p> <p>○ 지원내용: 방문교육</p>
	<p>다문화가정 청소년 진로의식 향상 및 진로직업 체험기회 확대 (100/100백만 원)</p> <p>추진주체:</p> <p>- 서울시: 사업기획 및 총괄, 사업 운영단체 선정 등</p> <p>- 사업 운영단체: 다문화가족 대상 진로진학 프로그램 진행 등</p> <p>○ 사업대상: 다문화가족 학부모 및 학생(중학생~고3 수험생)</p> <p>○ 지원내용</p> <p>- 학부모 진로진학아카데미, 학생 진로멘토링, 1:1진학상담, 진로진학캠프 등 대상별 세부프로그램 기획·운영</p> <p>○ 추진방법: 진로진학 전문단체 선정 및 사업비 지원</p>
	<p>중도입국청소년 또래친구만들기 사업 (90백만 원)</p> <p>추진주체: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자를 공모하여 프로그램을 운영</p> <p>○ 중도입국 청소년 및 한국인 학생 대상 문화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p>

(계속)

추진주체	지원내용 및 예산
부산광역시	<p>다문화가족 자녀 도서 구입 지원 (3.5/3.6백만 원)</p> <p>추진주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예산 지원 및 배분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p>○ 감성, 역사 등에 대한 도서를 구입하여, 부산 시내 지역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제공</p>
	<p>자녀발달주기별 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254/275백만 원)</p> <p>추진주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국비 예산 지원 - 부산광역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 예산 교부 등 행정지원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방문교육지도사 파견 <p>○ 사업대상: 결혼이민자, 만 3세~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 자녀</p> <p>○ 서비스 내용: 신청가정에 주 2회,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육, 어휘·문법·문화 등 - 부모교육: 자녀양육, 가족상담 및 정서지원, 정보제공 등 - 자녀생활서비스: 독서지도, 숙제 도움활동, 생활습관 및 진로지도 등
	<p>다문화 아바학교 운영 (6/6백만 원)</p> <p>추진주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산광역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 자치구·이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대상자 추천 및 자격 확인 - 교육청, 대학교, 국제교류재단과의 협조체제 강화 <p>○ 대상: 다문화가정 16가정 아바 및 초등학교 자녀</p> <p>○ 내용: 체험, 소통, 정서순화 프로그램 운영</p>
	<p>이중언어인재 양성사업 내실화 (52.2/56백만 원)</p> <p>추진주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가족부, 부산광역시: 국시비 보조금 교부, 지도관리 - 구군: 사업비 교부, 사업추진상황 점검, 네트워크 연계구축 <p>○ 사업대상: 영유아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족</p>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 부모-자녀 상호작용 교육 실시 - 부모-자녀 상호작용 교육 사전·사후 검사 실시 - 부모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실시 등 - 연제구: 다문화 어머니 모국어 배우기 - 사상구: 유아 이중언어(엄마표 토탈공예)
	<p>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를 통해 위기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 (2,040/3,069백만 원)</p> <p>추진주체: 부산광역시 및 구·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운영: 14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운영(시 1, 구 13) <p>○ 사업대상: 만 9세~24세 위기청소년</p> <p>○ 사업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 1388 청소년전화 설치·운영 -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활지원 등 - 위기(기능) 청소년 조기발전을 통한 개입·지원을 위하여 아웃리치, 사례관리

(계속)

추진주체	지원내용 및 예산
대구광역시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 확산 (21.5/24.5백만 원)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 대구광역시 → 구·군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대상: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및 학부모, 중도입국청소년 ○ 사업내용: 상담 → 심리치료, 부모·자녀 관계 향상, 사회성 발달, 미래설계
	중도입국자녀 대상 한국어교육 운영 내실화 및 질적 수준 제고 (35/40백만 원) 추진주체: 대구광역시 ○ 지원내용: 중도입국자녀를 위한 한국어 교육, 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 한국어 교육: 주1회 이상 정기적 한국어 교육(문법, 어휘, 쓰기 등) - 사회적 프로그램: 자기이해활동, 문제해결 드라마, 문화체험 등
	외국어, 예체능 등 다양한 양질의 특기적성 교육지원 (75/75백만 원) 추진주체: 대구광역시 ○ 사업대상: 다문화자녀 및 중도입국자녀 70여 명 ○ 추진방법: 1인 20작품 제작 → 전문가 평가 및 재능분석 → 학생 및 부모와 대면상담 → 재능성장 지원 → 전시회, 평가
인천광역시	다문화가족 사춘기자녀 캠프 지원 (52/52백만 원) 추진주체: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 필요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 가족 중 사춘기 자녀와 부모를 대상으로 1박 2일 캠프 운영 ○ 사춘기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는 강의 제공 ○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회복 프로그램
	다문화청소년 스포츠 체험교실 (12백만 원) 추진주체: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 대상: 다문화가정 청소년 40명(초등 5학년~중 2학년) ○ 내용 - 스마트 앱을 활용한 경기규칙 이해 - 경기종목별 선수의 스포츠 체험교실 운영 및 경기 관람
	다문화자녀 멘토링사업 추진 (89백만 원) 추진주체: 인천광역시 → 군·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대상: 다문화가정 초·중·고등학생 자녀 180명, 학습 멘토 180명(대학생 및 고등학생) ○ 내용 - 대학 및 고등학교 연계 지역별 멘토 모집 - 학습 및 정서 지원을 원하는 자녀와의 1:1 또는 집단 매칭 - 기초 교과목 학습지원(교재비) 및 정서지원 멘토링 - 멘토·멘티 간담회를 통한 멘토 학교생활 경험 및 학습 노하우 공유 등
	다문화가족 발달장애 아동 정밀검사 및 치료 지원 (40/48백만 원) 추진주체: 인천광역시 → 군·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대상: 영유아건강검진 결과 언어 및 발달장애 의심소견 다문화 및 외국인 가족 자녀 ○ 내용: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 수업방법: 정밀검사병원 지정을 통한 검사비 지원(군·구→지정병원) 군·구 관내 치료기관을 통한 치료비 지원(군·구→치료기관)

(계속)

추진주체	지원내용 및 예산
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자녀 학업 및 글로벌 역량 강화 (20/20백만 원) 추진주체: 남구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대상: 다문화가족자녀 및 외국인근로자·북한탈북자녀 ○ 장소: 남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및 외부기관
	중도입국자녀의 조기적응을 돕는 레인보우스쿨 확대 및 운영방식 다양화 (37.5/18.7백만 원)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대상: 중도입국청소년 만 9세~24세 ○ 운영방법 - 전일제: 상·하반기 각 16주, 여름·겨울학교 각 3주, 주 5일 운영(한국어수업 600시간, 특기적성수업 300시간) - 내용: 한국어, 체험활동, 체육활동, 음악, 미술, 영어, 진로지도 등
	중도입국자녀의 심리·정서적 안정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35.2/3.6백만 원) 추진주체: (다독다독)여성가족부 → 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무지개청소년센터 →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자녀성장지원프로그램) 광주광역시 → 북구 → 북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중도입국청소년 심리정서지원프로그램 - 다독다독 심리정서치료지원 ○ 다문화정 학령기 자녀성장지원프로그램
	기초학습 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432/303백만 원) 추진주체: 보건복지부 → 대전광역시 → 자치구(드림스타트센터) → 지역아동센터 ○ 대상: 맞벌이 다문화가족 아동 ○ 내용 - 다문화아동 기초 학습지도를 위한 초록펜 동아리 자원봉사자 지역아동센터 파견 - 다문화아동 급식(학기중 + 방학중) 및 방과후 돌봄서비스 - 아동복지교사 지원을 통한 학습지원, 야간보호 등 ○ 규모: 지역아동센터 144개소 운영
대전광역시	기초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방문교육 서비스) (105/110백만 원)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 대전광역시 → 자치구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방문 한국어 교육 지원 - 대상: 지리적 접근의 문제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입국 5년 이하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만 19세 미만) - 내용: 생활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단계적 한국어교육서비스 제공 - 규모: 방문교육지도사(한국어교육) 30명 배치 ○ 방문 자녀생활 지원 - 대상: 만 3세~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도입국자녀 - 내용: 학업 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족자녀에게 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 - 교육내용: 독서코칭, 숙제지도, 정서·사회성 발달 지도, 기본 생활습관 등 - 규모: 방문교육지도사(가족생활) 18명 배치
	기초학습 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찾아가는 책 읽어주기) (5.8/6백만 원) 추진주체: 서구 평생학습원 갈마·가수원·둔산·어린이도서관 ○ 독서지도 자격이 있는 강사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적극적인 독서서비스로 다문화, 저소득층 등 정보 취약계층 어린이들의 정서함양에 좋은 책 읽어주기, 동화구연, 글쓰기 등 다양한 독서활동 지원을 통해 독서흥미 유발 및 독서 활성화 도모 - 대상: 다문화, 저소득 가정의 만 2~10세 어린이 12팀

(계속)

추진주체	지원내용 및 예산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자녀 문화프로그램 운영 (15/15백만 원) 추진주체: 울산광역시 → 남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 자녀 음악, 미술, 체육활동 등 창의·인성 및 정서적 안정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족 자녀 방문학습 한국어 교육지원 (24/24백만 원) 추진주체: 울산광역시 → 학습지 전문업체 협약 → 대상자 선정(구·군) ○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 언어능력진단평가, 적성 및 심리검사, 교육정보제공, 1:1 맞춤형 한국어·한국사 방문학습 지도
	다문화가족 자녀 공부방 운영 (50/50백만 원) 추진주체: 울산광역시 → 구·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가족 자녀 공부방 운영(5개소) ○ 다문화가족 자녀 기초학습 부진학생을 위한 기본 교과목 지도 ○ 독서, 학교알림장, 가정통신문 지도 등
세종특별자치시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지원 프로그램 확산 (12.5/5백만 원)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내용 - (부모·자녀관계 향상 프로그램) 세종시에 거주하는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와 자녀에게 부모 교육 등의 사업 추진을 통한 자녀와 소통하는 방법을 습득 - (사회성발달 프로그램(역량강화)) 세종시에 거주하는 학령기 자녀에 학습지도 및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멘토링 사업, 동아리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한 놀이 및 교육(봉사 및 동아리 활동) 지원 등 - (미래설계 프로그램) 세종시에 거주하는 학령기 자녀에게 직업 및 진로 관련 체험 실시 ○ 대상: 상반기(다문화가정), 하반기(다문화가정, 비다문화가정)
	이중언어 인재 양성사업 내실화 (24.2/26.8백만 원)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부모자녀 상호작용 및 부모코칭, 활용 프로그램 - 대상: 영유아 자녀를 둔 다문화 가족 -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가 이중언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부모코칭, 놀이 및 책임어주기 활동 코칭
	기초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한국어서비스 예산에 포함 기재)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세종특별자치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대상: 만 3세~만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중도입국자녀 ○ 내용: 자녀의 독서코칭, 숙제지도, 기본생활습관, 진로지도 등 ○ 시간: 총 80회 제공, 주 2회, 회당 2시간 서비스 제공
경기도	다문화가족 자녀 건강지킴 (1.6/2.4백만 원) 추진주체: 포천시 → (사)선한다문화가정지원센터 ○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들에게 방과 후 교실 운영 후 간식 제공
	다문화가정 청소년 교육 지원 (5/10백만 원) 추진주체: 고양시 → 고양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대상: 다문화가정 자녀 15명(만 8세 이상) ○ 내용: 진로적성검사 및 부모 상담, 역사논술지도, 유적지탐방, 1인 1책 팝업북 만들기, 콘텐츠를 활용한 네트워크, 발표회 등
	찾아가는 지역돌봄서비스 운영 (40/40백만 원) 추진주체: 화성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각지대 다문화 아동 발굴 및 아동 돌봄서비스, 종결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지원

(계속)

추진주체	지원내용 및 예산
	<p>다문화 학부모 진로지원 워크숍 (20/19백만 원) 추진주체: 경기도 ○ 진로 적성검사, 강의, 상담까지 찾아가는 One Stop 교육 진행 ○ 사후 관리 1:1 진로 상담 진행</p>
	<p>다문화가족 어린이 오케스트라 교육 (15/15백만 원) 추진주체: 성남시(여성가족과) → 신흥뮤직아카데미 ○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 내용 - 다문화가족 어린이들에게 클래식 음악교육을 지원(피아노, 바이올린, 플루트 교육, 주 1회 2시간)</p>
	<p>가정통신문 번역서비스 지원 (5/5백만 원) 추진주체: 시흥시, 시흥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내용: 결혼이민자 6명(중국어 1명, 베트남어 2명, 영어 1명, 러시아어 2명)이 인근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 가정통신문, 월보, 주보 등의 번역서비스 지원</p>
	<p>전국 다문화 말하기 대회 (25/25백만 원) 추진주체: 경기도 ○ 대상: 전국 결혼이민자, 외국인주민 자녀(다문화가족 자녀 포함) ○ 내용: 경연대회, 축하공연 등</p>
강원도	<p>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운영 (119/119백만 원) 추진주체: 한국어교육협의체 → 강원도 → 시·군 → 중앙관리기관 → 사업수행기관 ○ 결혼이민자, 중도입국자녀를 대상으로 한국어교육 실시</p>
	<p>결혼이민자 및 자녀 교육지원 (244/244백만 원) 추진주체: 시·군, 방문교육 업체 ○ 방문교육업체 위탁교육 실시 ○ 결혼이민자 및 자녀 한글관련 방문 학습지 비용 지원 - 대상: 24개월 이상 관내 거주지 다문화가족의 초중고 자녀 - 내용: 학원 80천원, 학습지 24천원/과목당, 1인당 최대 2과목 ○ 컴퓨터 교실, 수학교실, 한국어교실 운영</p>
	<p>다문화가족 엄마(아빠)나라 말 배우기 (10백만 원) 추진주체: 인제군 ○ 대상: 만 18세 미만의 다문화자녀 및 저소득 자녀 ○ 내용: 엄마(아빠)나라 말 교육</p>
	<p>군인장병과 함께하는 다문화가정 글로벌 리더교육 (5/5백만 원) 추진주체: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군인장병의 교육 재능 기부 및 봉사활동</p>
	<p>다문화자녀 리더십 교육 (3/3백만 원) 추진주체: 영동군청, 영동군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대상: 다문화자녀 초등학생 / 사업량: 20명 ○ 내용: 창의력 및 자기주도 학습 교육, 과학캠프 등</p>
충청북도	<p>멘토멘티 (2백만 원) 추진주체: 청주시 → 청원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대상: 상당구·청원구 거주하는 다문화가정 자녀 ○ 내용: 멘토-멘티 연계를 통한 학습·정서적 지원, 지역사회 자원봉사 인력풀 구축,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 규모: 총 20회기, 실인원 12명(총인원 120명)에게 제공</p>

(계속)

추진주체	지원내용 및 예산
	<p>가족교육 실시 (0.1/0.1백만 원)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 도 → 시·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가족관계 향상교육, 학령기 자녀 입시정보 제공, 부모-자녀 자긍심향상교육, 부모역할교육, 자녀교육</p> <p>다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토요 다문화 이중언어 교실 (-/-백만 원) 추진주체: 수자원공사 충주사업단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다문화 초등학교 및 외국어 관심 있는 취약계층 초등생(중국어, 베트남어반)</p> <p>다문화자녀 글로벌 브릿지 사업 (10/10백만 원) 추진주체: 과산군 → 중원대 이주다문화통합연구센터 ○ 대상: 초등 4~6학년 ○ 내용: 글로벌 브릿지사업 커리큘럼 활용 - 다양한 교육 주제 및 전문 강의 등으로 구성·운영</p>
충청남도	<p>다문화가정 자녀 영재발굴 육성 프로젝트 (50백만 원) 추진주체: 부여군 ○ 다문화가족 자녀중 이중언어, 수리분야, 음악(악기)분야 영재학생 발굴 ○ 주 1~2회 학업, 수준별·단계별 반 편성 및 학습 지도 ○ 유관기관(교육청 등) 연계 및 우수한 강사진 구성하여 체계적 학습시스템 구축 ○ 영역별 맞춤형 사업(모국 어학연수, 수리영역 경시대회 참가)으로 학습효과 극대화</p> <p>다문화가정 자녀 입학준비금 지원 (32/32백만 원) 추진주체: 부여군 ○ 부여군 내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 초·중·고·대학교 입학생에 입학금 지원 ○ 다문화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녀들의 학교생활 적응에 기여</p> <p>다문화가정 자녀 보조학습비 지원 (27/27백만 원) 추진주체: 계룡시 ○ 대상: 계룡시 거주 다문화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 지원기준: [학습비] 1인당 연 600천원 이내(※분기별 균등지급) [교재비] 1인당 연 50천원 이내 ○ 내용: 인터넷 학습기관 및 사설학원 등록비</p>
전라북도	<p>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 확산 (다문화자녀 인성·정체성 교육 및 스피치 아카데미 운영) (15/22백만 원) 추진주체: 순창군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대상: 30명(초·중·고 자녀) ○ 내용: 웅변교육, 인성캠프, 웅변대회 등 운영</p> <p>자녀 발달주기별 부모교육 및 정보제공 강화 (아버지학교 운영) (15/15백만 원) 추진주체: 진안군 → 진안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대상: 진안군다문화가족(아버지 및 자녀) 75명 ○ 내용 - 자녀발달단계별 전문가 초청 아버지 교육 - 자녀와 함께하는 아빠-자녀 캠프, 문화체험 - 면으로 찾아가는 집단상담</p> <p>기초학습능력 강화 프로그램 운영 확대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활동비 지원) (99/100백만 원) 추진주체: 순창군 ○ 대상: 114명(초·중·고 다문화자녀) ○ 내용: 보습, 영어전문, 예체능 중 1인당 2과목 학습비 지원</p>

(계속)

추진주체	지원내용 및 예산
	<p>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익식 고취 및 진로기업 체험기회 확대 (다문화청소년 진로지원) (100/100백만 원)</p> <p>추진주체: 전라북도</p> <p>○ 대상: 200여 명(도내 다문화가족 청소년)</p> <p>○ 방법: 센터별로 진로적성검사 및 상담, 진로직업체험캠프 등 프로그램 운영</p>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유형 사전검사 실시 및 유형별 진로설계 - 진로 및 직업체험캠프 운영과 진로 및 현장 체험활동 지원 - 전체 활동에 따른 자료집 제작 및 배부
전라남도	<p>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다재다능) 확산 (203/211백만 원)</p> <p>추진주체: 여성가족부 → 도 → 시군 → 다문화지원센터</p> <p>○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언어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 내용: 자녀 언어평가 및 언어교육, 부모 상담 및 교육
	<p>다문화가족 한글대회 및 비타민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27/27백만 원)</p> <p>추진주체: 전라남도, 시군</p> <p>○ 다문화가족 한글대회 개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도내 결혼이민여성 및 다문화가족 - 내용: 한글 쓰기 및 말하기 대회, 한글 퀴즈 등
	<p>CYS-Net을 통해 위기 다문화가족 청소년에 대상 맞춤 서비스 지원 (1,219/1,208백만 원)</p> <p>추진주체: 여성가족부 → 도 → 시군 → 전라남도청소년미래재단지원센터</p> <p>○ 위기 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p> <p>○ 상담전화 설치 및 운영</p> <p>○ 지역사회 위기 청소년 조기발견 지원</p>
	<p>다문화청소년의 진로익식 고취로 진로직업 체험기회 확대 (36/36백만 원)</p> <p>추진주체: 여성가족부 → 도 → (재)전라남도청소년 미래재단 → 시군</p> <p>○ 도 및 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군 청소년 정책과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자문·평가 -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 토론회, 캠페인 개최 및 참여 등
경상북도	<p>다문화청소년 나라사랑 체험 교육 (10/10백만 원)</p> <p>추진주체: 경상북도 → 육군3사관학교</p> <p>○ 기간: 2019. 5월 중</p> <p>○ 대상: 100명(도내 다문화청소년)</p> <p>○ 내용: 병영체험, 서바이벌 게임, 호국유적지 답사, 애국익식 등</p>
	<p>외국어, 예체능 등 다양한 양질의 특기적성교육 프로그램 지원(다문화가족자녀 글로벌 인재육성 지원) (70/70백만 원)</p> <p>추진주체: 경상북도 → 경상북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p> <p>○ 기간: 2019. 1~12월</p> <p>○ 대상: 도내 다문화가족 자녀(초등 3~중학생) 80명(이중언어 연수 국내 60명, 해외 20명)</p> <p>○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해 국내 및 해외 이중언어 캠프운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이중언어 캠프: 10일간 2회 (1월, 8월), 60명(베트남, 중국) - 국외 이중언어 캠프: 베트남 칸화대학교 2주간(1월), 20명

(계속)

추진주체	지원내용 및 예산
	<p>중도입국자녀 맞춤형 지원사업 (10백만 원) 추진주체: 경상북도 → 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대상: 30명(도내 중도입국 다문화자녀) ○ 내용: 중도입국자녀 한국어 집중교육,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 개방하는 프로그램 진행,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p>
경상남도	<p>언어발달 진단 및 자녀성장 지원 (260/260백만 원) 추진주체: 여성가족부 → 경상남도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대상: 언어평가 및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 ○ 내용: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 평가 및 교육, 상담 ○ 규모: 언어발달지도사 26명(주 5일제 23, 주 4일제 3) - 주 5일제, 주 4일제 운영</p>
	<p>자녀성장지원 프로그램(다재다능) 확산 (18/18백만 원) 추진주체: 산청군, 함양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위탁운영) ○ 대상: 다문화가족 및 자녀부모·자녀 관계 향상 ○ 내용: 부모+자녀 관계 향상 프로그램(우리가족 탐구생활, 가족보물찾기, 우리가족설계도, 가족 체험) - 다문화자녀 미래설계 과정(동아리 활동과 공연 지원) ○ 규모: 다문화자녀 미래설계 프로그램 총 17회기</p>
	<p>다문화가정 치아돌보미 지원 (3/3백만 원) 추진주체: 거제시 건강증진과 ○ 대상: 다문화가정 어머니, 자녀 ○ 기간: 연중 ○ 내용: 스케일링, 불소 도포, 충치치료, 구강교육 및 상담</p>
	<p>토요글로벌 학교 운영 (4/10백만 원) 추진주체: 경상남도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대상: 언어평가 및 교육이 필요한 다문화가족 자녀 ○ 내용: 베트남어 강의, 베트남 문화체험 ○ 규모: 도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1개소)</p>
제주 특별자치도	<p>다문화가족 자녀 사회통합지원사업 (100백만 원)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비영리민간단체, 언론사 ○ 대상: 다문화가족 아동과 청소년 ○ 내용 - 결혼이민자 출신국가 대사, 총영사 등 외교관 초청 청소년 글로벌리더 과정(토크콘서트) 운영 - 각국 대사관 연계 글로벌문화 체험의 날 운영 - 다문화 인식개선 연중 캠페인 등</p>
	<p>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촉진사업 (30/30백만 원) 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 → 거점센터(제주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대상: 언어평가 및 교육이 요구되는 다문화가족 자녀(만 12세 이하) ○ 지역 내 아동언어심리치료 전공 학부생과 졸업생을 언어지도사로 양성 ○ 언어평가·언어교육 ○ 부모상담 및 부모교육</p>

(계속)

추진주체	지원내용 및 예산
	<p>중도입국자녀 교육 프로그램 운영 (40/40백만 원)</p> <p>추진주체: 제주특별자치도</p> <p>○ 대상 :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자녀</p> <p>○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 및 인성 교육, 인성캠프 및 또래캠프 운영, 한국문화체험- 진로 상담 및 지도, 직업체험, 특기적성교육

자료: 여성가족부(2019).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 김기영·고은선. 2018. “다문화교육 지원정책에 대한 이주배경 청소년의 인식과 요인 분석.” 『교육혁신연구』 28(1): 405-425.
- 김미숙·김유경·김안나·김효진·성수미. 2011.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연. 2010. “다문화가정의 사회적응 실태분석과 정부지원정책 방안.”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승경. 2013. 『다문화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1: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이선·박신규·최진희·동제연·박대식·안석·김남훈. 2018. 『농촌 다문화가족의 사회통합 실태 심층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혜련. 2013. “다문화 가정 중등 학습자 대상의 한국어 교재 개발 방향.” 『교육연구』 (56): 8-26.
- 노충래·홍진주. 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서울경기지역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2호. pp. 127-159.
- 박대식·마상진·권인혜. 2011.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대식·최경은. 2008. 『농촌의 다문화가정 실태와 정책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박병금. 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적응 연구 동향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2): 371-381.
- 박순희·조원탁·이주희. 2008.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적응과 관련변인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7(27): 58-76.
- 법무부. 2020. 『출입국통계』.
- 서광석. 2010.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을 위한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인하대 박사학위 청구논문.
- 신혜진. 2018. “다문화학생 지원 정책사업의 중복성에 대한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6(1): 169-193.
- 엄명용. 2013. “다문화가정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 사회 적응 영향 요인.” 『한국가족복지학』. 42(42): 39-82.
- 여성가족부. 2019.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 오경자·하은혜·이혜련·홍강의. 2001. 『K-YSR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 서울:중앙적성출판사.

- 오경화. 2011.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한국문화수용성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9(9): 83-97.
- 윤인진. 2000. “탈북과 사회적응의 통합적 이해: 국내 탈북자를 중심으로.” 『현대북한연구』 3(2): 123-184.
- 이상로. 1979. 『성격과 행동의 지도』. 서울:중앙적성출판사.
- 이소연. 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수용태도 변화궤적과 관련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9(1): 179-208.
- 이종우. 2011.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사 교육의 현황과 과제-공주대학교 재외동포교육센터를 중심으로.” 『다문화와 평화』 5(2): 91-120.
- 이현주·이달엽·이흥무·최윤영·최경숙·김통원. 2004. 『산재근로자의 사회적응프로그램 모델개발 및 접근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은선경. 2010.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아동복지학』. 33: 37-74.
- 정하성·우룡. 200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적응 실태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개발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정호용. 2017. “정부 지원 정책이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국가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2017 다문화청소년 패널 학술대회』. pp. 555-583.
- 조석주·박지영. 2012.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이주민정책 개선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한국교육개발원. 2015~2019 각 연도. 『교육통계분석자료집』.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2016 각 연도.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 한상철. 2012.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적응유연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미래청소년 학회지』 9(4): 239-258.
- 황갑진. 2011. “학교 다문화교육 정책과 프로그램 현황과 문제점.” 『사회과교육연구』 18(4): 151-167.
- Abrevaya, J., Y.C. Hsu. & R.P. Lieli. 2015. “Estimating Conditional Average Treatment Effects.” *Journal of Business & Economic Statistics* 33(4): 485-505.
- Berry, J.W. & N. Kostovcik. 1990. Psychological adaptation of Malaysian students in Canada. In A.H. Othman & W.R.A. Rahman (Eds.). Psychology and socio-economic development (pp.155-162). Bangi: Penerbit Universiti Kebangsaan Malaysia.
- Crick, N.R. & K.A. Dodge.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 Psychological Bulletin* 115. pp. 74-101.
- Gregory, C. 2015. "Estimating treatment effects for ordered outcomes using maximum simulated likelihood." *Stata Journal* 15(3): 756-774.
- Hasebe, T. 2013. "Copula-based maximum-likelihood estimation of sample-selection models." *Stata Journal* 13(3): 547-573.
- Lazarus, R. 1976. *Patterns of Adjustment*. Tokyo: McGraw-Hill Kogakusha.
- Maddala, G.S. 1983. *Limited-dependent and qualitative variables in econom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oy, C. & H.A. Andrews. 1991. "The roy adaptation model." Appleton & Lange, Connecticut.
- Sklar, A. 1959, "Fonctions de répartition à n dimensions et leurs marges", Publ. Inst. Statist. Univ. Paris, 8: 229-231.
- Ward, C., S. Bochner. & A. Furnham. 2001. *The psychology of culture shock (2nd ed.)*. Hove, UK: Routledge.
- Winkelmann, R. 2012. "Copula bivariate probit models: with an application to medical expenditures." *Health Economics* 21: 1444-1455.